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 교의 주체가 되시며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첫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히 나님의 복음 전파 명령을 생명 바쳐 수 행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 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 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 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 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주후 2016년 5월 28일 (토) 제 **1585호** www.chpress.net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 되라!"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5FI.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총회장에 고택원 목사, 부총회장 유재일 목사 선출

KAPC 제 40회 총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영수 목사) 제 40회 총회가 5월 17일 오후 7시 뉴저지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려 신임 총회장에 고택원 목사(필라 새 한장로교회), 부총회장에 유재일 목사(앵커리지열린문장로교회)를 선출했다. KAPC총회는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 되라!"(사6:8)라는 주제로 목사 총대 173명, 장로총대 18명 등 총 191명의 총대가 참석한 이번 총회는 20일 폐회예배까지 3 박4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신임 총회장 고택 원 목사는 "총회를 사랑하고 자랑스러 워하는 일원으로서 총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총회 가 지난 몇년 간의 어려움을 씻어내고 다시 일어서는 회기 를 만들고 싶다. 1년 에 한 번 만나는 이 시간을 회원들이 더 알차게 보낼 수 있 도록 회의 시간 운 용에 변화를 주려

한다. 또한 임원들의 지출에 회원들의 불만 이 없도록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또 공천부를 통한 임원선거에서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고택원 목사(필라) △부총회 장: 유재일 목사(가미) △서기: 허상회 목 사(가든) △부서 기: 김미성 목사(서북미) △회록서기: 김대업 목사(뉴잉글랜드) △ 부회록 서기: 한일철 목사(동남) △회계: 전성호 장로(뉴욕) △부회계: 박찬호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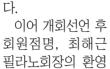
개회예배는 총회장 김영수 목사의 사회 로, 전태준 목사(중앙) 기도, 최기정 목사(카나) 성경봉독(사6:1-10), 필라노회 연합 찬양대의 찬양 후 고택원 부총회장이 "비 전과 열정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설 교했으며, 서기 조흥철 목사 광고 후 윤종 호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성찬예식은 송찬우 목사 집례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0회 총회가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필라노회 진행으로 열렸다.

이춘호 목사의 기도 후, 최중현 목사가 고린도전서 5장 18 절로 20절을 봉독하 고, 송찬우 목사가 " 화목제와 성찬"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후, 분명 및 분잔을 거행하고 이영섭 목 사 축도하고 마쳤



사, 서기 절차보고가 있었다.

고시부는 총회에 앞서 13일부터 16일까 지 치러진 목사학력 및 자격고시 결과 총 응시자 21명이 모두 합격한 것을 보고했다.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재성(북가주), 박민우(뉴서), David 박 성권(뉴욕), Timothy 박진호(뉴동), 이성재



총회장 고택원 목사



부총회장 유재일 목사

(중부), 정우현(중부), 박선강(카나다), 김석 인(북가주), William Kurt Schwartz(중부), 김대진(뉴욕), 박병섭(뉴욕), 심세진(중부), James 임재완(중부), 박찬양(필라), 정성만(필라), Thomas 김명현(필라), 정효군 (Xiaojun Zheng 중부), Daniel 김동규(뉴 동), 강현명(필라), Joseph 김민우(필라), 문 성재(필라). 〈3면으로 계속〉

동성애 문제, 2018-2019년 총회로 연기

'2016, 미연합감리교회(UMC) 총회 소식(2)

5월 16일 총대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청원안들을 다루기에 앞서 사법위원회, 고등교육자문위원회, 그리고 총회위원 회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를 먼저 했다. 공식 투표로 임원진들을 구성하자, 흑인의 인권("Black Lives Matter") 시 위로 총회가 잠시 중단됐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흑인의 생 명도 소중하다!"라고 외치며 150명에 가 까운 연합감리교인들이 총회 전체회의 장소에 들어와 억압받고 소외 받는 자들 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 후 속개된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는 동안 이뤄어졌다.

총감독회의 회장(Bruce Ough감독)은 LGBTQ 사람들을 온전히 교회에 받아들 이는 문제로 2016 총회 중 고통과 분노 가 끓고 있는 것을 인정했으나, 총감독회 는 교회의 화합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감독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단 내의 이견을 살펴보고 2018년에는 회의 를 열어 교단 분열을 논의한다는 소문이 온라인상에 돌고 있었으나, Ough 감독 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Ough 감독은 또한 감독들 간에도 이견이 있다고 시인 했다. 따라서 교회 일치를 위해 18일 동



한반도 평화위해 지지 기도 요청

루완다를 UMC의 준연회로 만드는 청원 안을 승인했다.

5월 17일: 교단 분열 소문을 종식시 키다!

대의원들은 2천만 달러 교회성장 전 문가 그룹에 투자, 미국의 감독 종신제를 폐지, 새로운 찬송가를 편찬 등의 안건들 을 심의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이 모 든 것은 교단 분리에 대한 소문이 퍼지 성애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대의원들은 교단 내 사역을 위해 쓸 수 있는 기금 중 2천만 달러를 미국 내의 교회 성장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 로 전환하는 청원안을 사법위원회에 의 뢰했다. 사법위원회는 이 계획이 연합감 리교회 헌법에 비춰 적법성을 판단할 것 이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0년 경력의 "월간광야"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유럽 우익 지도자들처럼 선동전 술로 소외 계층 공략한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8면

손동원 박사



고택원 목사(새한장로교회 담임)

Southern California Seminary

Southern California Seminary(SCS)는 미국 학교로는 처음으로 심리상담학 석사(MACP)와 결혼 가족 치료사(MA in MFT) 그리고 심리상담학 박사(Doctor of Psychology)를 한국어 과정(한/영 이중언어)으로 개설하였습니다.





SCS 는 미 연방정부 TRACS 인가 학교로서 The California Board of Behavioral Science와 California Board of Psychology 에서 인증 받은 학위과정 입니다.

* I-2O 발행-유학생 환영

SCS의 Behavior Sciences 대학원은

- 석사 및 박사 과정 후 CA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 면허를 취득하시면 직접 클리닉 개업 가능합니다.
- 졸업생들은 전문상담사, 임상 심리 치료사, 가정사역자 등 비영리 기관, 병원, 교회 등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 상담 관련 교육 과정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동급의 다른 학교 학비와 비교해서 저렴한 학비로 공부하실 수 있으며 수시입학이 가능합니다.
- 학자금보조신청 (Federal Student Financial Aid)이 가능하며 부부장학금, 교회 및 기관 사역 장학금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상담, 약물중독 상담, 전문코칭 등



● MA in Christian Ministry (신학부 석사과정: 평신도, 직분자, 교회 리더를 위한 1년 석사과정 계발) 한국어 신학부: 안국환 교수 kukwhan,ahn@socalsem,edu, 619,201,8982

심리학교수님 초빙

박사학위 및 라이센스 소지하신분

자기소개와 이력서를 samuel,lee@socalsem,edu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의 선거운동은 해외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우익운

동과 빼닮았다. 특히 트럼프는 "미국

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외치

기 때문에 다분히 역설적이다. 그렇

다면 트럼프가 어떻게 그들을 본떴

느냐가 아니라, 왜 지금까지 미국에

선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는 의문이 든다. 트럼프는 '미국 예

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위치에 있다

는 뜻)'를 내세우기보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정치적인

트럼프의 유세도 우리가 아는 일

반적인 선거운동과 달리 록음악 콘

서트나 대형교회의 통성기도 시간과

비슷하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트럼

힘을 차용한다.

뉴스위크는 이러한 '트럼프 신드롬'을 이해하려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

다고 설명한다(CULT OF PERSONALITY: HOW TRUMP USES THE

PLAYBOOK OF EUROPE'S FAR RIGHT). 2회로 나눠, 트럼프가 사용하

고 있는 우익운동 노선과 소외된 미국인들을 정치현장으로 불러들이는 대

역사에서 답을 찾는다!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저는 오늘 한 선교사 가족 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임 스 홀, 로제타 홀 선교사 부 부입니다. 제임스 홀은 스크 랜튼이 세운 "시병원"에서, 로제타 홀은 "보구여관"에서 각기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 습니다. 제임스 홀은 평양으 로 가 청일 전쟁이후 부상병 들과 많은 백성들을 치료하 다가 과로로 쓰러졌고 디프 테리아까지 걸려 죽을 지경 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평양

에 먼저 와있던 모펫 선교사가 평양에서 인천까지 배편을 마 련해줍니다. 그는 인천에 도착하여 1주일 정도 지나서 부인 품안에서 "내가 평양 오지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을 알고 갔다가 죽게 되었다고 나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 를 평양에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평양과 같이 완악한 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제물이 필요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그 첫 번째 희생제물이 된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 다. 그때 이들에게 아들인 쉐우드 홀이 만 1살, 뱃속에 7달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로제타 홀은 안식년 겸 미국 와서 아이 낳는데 딸이었습니다.

로제타는 "하나님! 할 일 많아 우리 부부를 조선에 보내셨 는데 당신은 왜 남편을 데려가셨나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 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할 일이 많다. 조선으로 다시 가라."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다시 조선으로 갑니다. 남편의 못다 한 일하자 마음 먹고, 평양으로 올라가 남편 제 임스 홀 박사를 기념하고자 "기.홀 병원"과 평양 최초의 여 성병원인 "광혜여원"을 세웁니다. 얼마 후 미국에서 낳고 돌 아온 그 딸이 만 3세 되던 해에 이질에 걸려 죽게 됩니다. 이 어린 딸을 아빠가 묻혀있는 마포 양화진에 함께 묻기 위해 엄마인 로제타 홀은 이 길을 걸으면서 일기를 씁니다. "생전 에 보지 못한 아빠 얼굴 보고 싶어 아빠 옆에 묻히고자 내 딸 은 평양에서 서울로 갑니다. 이 길이 아빠가 평양을 구원하 기 위해 수도 없이 걸어 다녔던 바로 그 길입니다"라고.

이제 하나 남은 아들인 세우드 홀은 3살에 아빠 제임스 홀 을 잃어버리고 5살 때 동생 이디스 홀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아빠와 동생을 앗아간 조선이 싫어 미국으로 돌아가 비즈니 스 스쿨을 다니고 미국서 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1906년 하디 선교사가 평양 남산현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 합니다. 바로 그때 이 13살난 쉐우드 홀이 거기에 앉아 있었 는데 은혜와 성령이 물 붓듯이 내려옵니다. 그는 하나님 앞 에 서원합니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의사가 되어 조선 에 뼈를 묻겠습니다. 복음으로 조선을 구하는 일을 하겠습니 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메디컬스쿨을 졸업하고 의사가 됩니다. 당시 조선에는 폐결핵 환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쉐 우드 홀은 "나는 조선의 폐결핵을 퇴치하는 운동에 앞장 서 겠다"고 결심하고 조선으로 돌아와 그의 아내인 메리언 홀 과 함께 폐결핵 퇴치운동에 앞장섭니다.

오래전 크리스마스실을 만들어 결핵퇴치운동을 벌인 사 람이 바로 쉐우드 홀입니다. 이 부부도 양화진 묘지에 묻혔 습니다. 그래서 마포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조선에 파 견된 선교사중 최초로 순직한 윌리엄 제임스 홀, 그의 아내 인 로제타 홀, 그들의 아들인 셔우드 홀, 며느리인 메리안 홀, 어린 시절 사망한 에디스 홀. 총 5명의 선교사 가족이 묻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사망한 에디스 홀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사로 봉사한 기간 을 합치면 무려 73년이나 됩니다.

〈3면으로 계속〉

유럽 우익 지도자들처럼 선동전술로 소외 계층 공략한다!

뉴스위크, 미국인들이 도널드 트럼프에 끌리는 이유 분석(상)

미국 정치 엘리트층은 공화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기이한 선거운동을 지난 1년 동안 지켜봤지만 아직도 그를 이해할 수 없어 곤혹스러워 한다. 부동산 거부인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에서 살아남 은 유일한 후보다. 이제 이변이 없는 한 그가 공화당 후보로 지명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공화당의 원칙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정치의 규칙을 무시하면서 승승장구했다. 정치 논평가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트럼프가 공 화당의 다른 경선후보들을 완패시킨 현상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

신 해고야!"를 내뱉고, 협상의 대가 이며, 자기 이름을 딴 스테이크 레스 토랑도 냈다.

솔리니를 떠받친 것은 "당이나 이념 보다 그 개인을 추종한 세력"이었다. "무솔리니 개인을 향한 그들의 열광

중인기영합주의를 소개한다.



단순한 폭력 사용이 아닌 '이례적인 존엄성, 영웅주의, 모범적 성격'에 바 탕을 둔 지도자를 묘사하기 위해 '카 리스마적 권위(charismatic authority)'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많 은 사람은 트럼프를 존경할 만한 후 보로 보지 않지만 지지자들은 그가 사업가로서 성공했다는 사실과 개인 적으로 쌓아올린 부(富)로 인해 누 구도 침범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막대한 재산 덕분에 트럼프는 선거자금을 마련하려고 꼴 사납게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트럼프 지지자인 닉 글로브(62)는 신시내티 교외의 유세장 밖에서 "미 국 정치인은 하나같이 누군가에게 매수되고 돈에 팔린다"고 말했다. "

않아도 된다.

독재자들 사용한 정치전술 차용... '개인숭배가 이념 능가' 연설문 작성자도 필요 없고 선거자금 마련위해 비위도 안맞춰

프는 지난 3월 중순 오하이오 주 신 시내티 외곽에서 유세하는 동안 유 권자들의 질문은 받았다. 하지만 사 람들은 그를 다그치기보다 그의 비 위를 맞추려 애썼다.

성조기를 휘두르고 프로야구팀 신 시내티 레즈의 모자를 쓴 중년의 지 지자는 그에게 "도널드 트럼프, 난 당신이 너무 좋아. 당신은 미국의 미 래야"라고 말했다. "오늘 당신을 보 려고 17시간이나 기다렸다. 떠나기 전에 같이 사진 한 장 찍고 싶다."

한 백인 중년 여성은 트럼프에게 포옹해 달라고 했다. 다른 여성은 그 에게 "돈에 팔리지 않는 대통령 후 보를 보니 너무 신선하다"며 "난 미 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당 신의 말을 믿는다"고 얘기했다. 트럼 프는 활짝 웃으며 "그게 질문보다 훨 씬 낫다. 아주 마음에 든다"고 답했

물론 민주당 후보 버니 샌더스도 열성팬이 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 도 후보시절 많은 팬을 거느렸다). 그런 경우 유권자들은 이슈보다 이 미지에 중점을 두며 특정 후보의 상 징주의에 열광한다. 그러나 트럼프 는 언제나 자신이 중심이다. 전용 헬 기를 타고, NBC 방송의 인기 리얼리 티 쇼 '어프렌티스(견습생)'에서 "당

세계 다른 지역의 지도자를 연구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정 치 브랜드가 바로 그것이다. 비평가 와 코미디언들은 트럼프를 나치 독 일의 아돌프 히틀러, 우간다의 이디 아민 등 악명 높은 선동가에 견준다. 그가 폭군처럼 통치할 것이라는 뜻 이다. 물론 과장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 한 정치 전술을 트럼프가 선거운동 에 그대로 차용한다는 점이다. 트럼 프 외에도 현재 유럽 등지에서 권력 을 잡기 위해 비슷한 전술을 사용하 는 정치인이 적지 않다.

미국 정치 엘리트층은 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 후보를 무시했다. 그들 은 유권자가 그를 주의 깊게 보기 시 작하면 그의 알맹이 없는 실체가 드 러나 지지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 각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사실상 미 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지금 초기의 반대론자들이 너무도 그를 오판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 번 공화당 대통령후보 경선이 남긴 교훈은 강한 개인숭배가 이념을 능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에서 수 많은 선동가들이 입증한 사실이다.

영국 버밍엄대학의 소련·러시아 역사 전문가 아르폰 리스 교수에 따 르면 이탈리아 파시스트 독재자 무 적인 지지는 전통적인 당 구조를 우 회하거나 뒤집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조셉 새순 부교수는 트럼프와 역사적인 선동가 들 사이에 다른 유사점도 있다고 말 했다. 그는 트럼프가 자신의 최고 보 좌관은 바로 자신이며 연설문 작성 자는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이집트의 가말 압 델 나세르를 아우르는 특질"이라고 말했다. "그들 모두 자신의 말 그대 로 연설하고 싶어 했다. 개인숭배의 필수적인 요소는 자신이 독존적 존 재로 다른 사람과 아무 것도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독일 철학자 막스 베버는 법치나

그렇지 않은 유일한 후보가 바로 트 럼프다."

영국 배스대학의 정치학 교수 로 저 이트웰에 따르면 트럼프의 카리 스마적 권위는 그가 기성 정치를 초 월한다는 지지자들의 믿음에서 나온 다. 그의 권위는 TV리얼리티 쇼에서 얻은 명성을 넘어선다. 이트웰 교수 는 "연예계의 인기는 상당히 일시적 인 현상이며 대중 정서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설명했다. 반면 트 럼프의 선거운동은 그보다 더 깊은 무엇을 제공한다. 지지자들에게 "일 체감"을 준다고 이트웰 교수는 말했

〈다음 호에 계속〉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The Korean Christian Press ■편집국장:유원정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2016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Master Degree Programs Doctoral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1.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2.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사

동성애 문제, 2018-2019년 총회로 연기

(1면에서 계속)

텍사스 연회의 대의원, 하우 스(Donald House Sr.)는 "전략 과 성장 상임위원회"라는 새로 운 위원회를 구상한 사람이다. 경제학자인 그는 연합감리교회 가 미국에서 단단한 미래를 위해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 14년 밖 에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 의 계획은 교회성장 전문가들과 "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가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만들 어 교회성장을 위한 전략을 짜 는 것이다.

또한 UMC는 1989년 이후 다 시 찬송가를 만들게 됐다. 새찬 송가는 온라인 클라우딩으로 만 들어지며, 수요에 따라 인쇄 출 판도 할 계획이다. 주류교단이 첨단기술의 찬송가를 만드는 것 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인으로 구성된 찬송가개편 위원회 개설이 합의된 의사일정 (consent calendar)에 포함돼 승

인됐다. 2020년 총회에서 찬송 가자문위원회의 제안이 승인되 면, 빠르면 2021년에 새찬송가 가 나오게 된다.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수 인종 들을 위한 목회강화안들(Asian American Language Ministry Plan, Pacific Islander Ministry Plan, the National Plan for Hispanic Ministry, Korean Ministry Plan)이 승인됐다.

5월 18일: 예상대로 인간의 성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다

대의원들은 그간 4년에 한번 씩 토론한 인간의 성문제에 관 해, 이번에는 이 문제를 일단 보 류하기로 했다. 인간의 성문제 관련에 관한 토론을 보류하고 새 롭게 만들어질 위원회에 이 문제 를 넘기도록 하자는 총감독회의 의 추천안을 받아들이기로 이날 오후 늦게 결정했다.

이 추천안을 발표하면서 총감 독회의의 의장(Bruce 감독)은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의 영적 지 도자로써의 역할을 받아들여 연 합감리교회를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라며, 또한 "입 법 활동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는 노력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 엇인지를 의도적으로 찾고자 한 다"고 설명했다. 감독들은 또한 이러한 안건들을 다루기 위한 특 별총회를 2018년 또는 2019년 에 소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5월 19일

인간의 성에 관련된 법안들 을 투표할지 아니면 감독위원회 가 임명하기로 한 특별위원회에 일임할 것인지를 하루 종일 토론 한 후, 대의원들은 후자를 택했 다. 이 특별위원회의 비용은 1백 만 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추정 한다.

대의원들은 미국 원주민들을 비하하는 마스코트나 상징을 스 포츠 팀들이 사용할 때 발생되는 악영향에 관한 의식교육을 UMC 기관들이 하도록 촉구하는 결의

안을 압도적 지지로 승인했다. 이 전의 청원안에는 UMC 단체 들이 그런 마스코트나 이미지를 쓰는 스포츠 팀들이 소속된 도시 에서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것 을 요청하는 문구가 있었으나, 입법위원회에서 그 문구를 삭제 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시

한편 한국 전쟁과 한반도의 평 화와 화해 사역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장위현 목사, 김정호 목 사, 조건삼 목사, 우경아 목사 등 이 연단에 올라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UMC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지와 기도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5월 20일: 증액된 예산 통과 대의원들은 2017-2020년 회 기 예산을 지난 회기 예산보디 소액 증가된 6억4백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16년째 최소 예산 기록을 세울 뻔한 2016년 교단 총회 대의원들에게 처음 제 출된 5억9천9백만 달러보다 다 소 증가된 액수다.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 되라!"

〈1면에서 계속〉

이어서 공천부는 임원선출을 보고하고 신구임원 교체가 있었 다.

김영수 전 총회장은 신임 총 회장 고택원 목사에게 성경과 헌법 고퇴를 전달한 후, 신구 임 원을 교체하고, 새한장로교회 여전도회가 신 임원들에게 휘장 을 분배했다.

이어 고택원 신임 총회장의 취임인사 후 전 총회장 김영수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둘째 날 낮 시간에는 랭캐스 터 밀레니엄 극장에서 성극 "삼 손"을 관람하기도 하는 등 자유 시간을 가졌으며, 저녁 8시부터 "선교의 밤" 행사를 가졌다.

예배는 선교회 회장 이용걸 목사의 사회로 기도 하태수 목 사, 뉴욕퀸즈장로교회 글로리아 싱어스의 특별찬양 후 GMS 본 부 총무 조기산 목사가 "물이 바 다를 덮음같이"(시:133:1-3)라 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진완(아르헨티나), 서 샬롬 부부(필리핀), 전봉주(글로 벌 hope)를 파송선교사로 파송 하고 김영수 목사의 격려사 후, 고택원 목사 축도로 마쳤다.

셋째 날 열린 총무보고는 지 난회기 각 노회별로 의견을 물 었던 3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 개혁개정 성경 수정의 건: 찬성 17, 반대 10로 가결됐고 ▷목사 장로 70세 정년제의 건: 찬성10, 오후에는 친선사절단을 소개하 는 시간을 가졌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 Dr. Peter A. Lillback(국제프로 그램 디렉터 권혁민 목사 통역), 비브리컬 신학교 총장 Dr. Frank A. James III, 대한예수교 장로회(합신) 총회장 안만길 목 사(서기 홍문균 목사, 총무 박혁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총회장 박영길 목사(서기 박만 수 목사, 총무 최희용 목사), PRCC(Presbyterian Reform Church Chaplin) 교단 김주은



선교의 밤 예배에서 퀸즈장로교회 글로리아싱어즈가 특별찬양하고 있다.

목사 등이 인사했다.

임사부 사업 보고에서는 남가 주노회가 헌의한 부총회장 입후 보자 입후보 횟수 제한은 현행 대로, 총회 임원 공천 비례 대표 제 헌의건은 현행대로, 총회 임 원회가 헌의한 '부총회장 1인, 장로 1인 제도' 검토의 건은 현 행대로 하기로 결의했다.

동남아노회가 청원한 총회 방 송국 개국과 운영을 위해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의 공식 명칭 사용 허락, 임원회에 맡겨 1년 내에 방송국을 실사해 차기 총

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당석에서 제안한 안건인 " 대한성서공회와 한국찬송가협 회에 이사 파송 요청"은 허락하 고 임원회에 일임해 처리토록 했다.

총회상설 재판국 보고는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받기로 했다.

마지막 날 폐회예배는 조정기 (로스) 목사 사회로 신종식(서 북) 목사가 설교한 후 총회장 고 택원 목사 축도로 총회는 모두 마쳤다.

〈유원정 기자〉

시론

〈1면에서 계속〉

5명 모두다 의사라는 좋은 직 업, 미국이라는 편하게 떵떵거 리고 잘살 수 있는 환경을 뒤로 하고 조선 땅을 향하신 하나님 의 선교를 위해 도구로 사용되 다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로 갔습니다. 이들 선교사의 삶 은 한마디로 "희생과 헌신"이었 습니다(요12:24).

오늘 우리들과 교회는 바로 이런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

복음장로교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오 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 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 습니까?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 다는 이기적인 신앙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님과 교회 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사라졌 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어린 희생과 헌신이 사라졌습니다. 역사에서 답을 찾는다면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을 깨뜨리 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

에게 하나님 나라의 더 넓은 지 평을 선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배고파 병들어 죽어가는 이웃들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남과 여, 가진 자와 못가 진 자,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등등의 모든 차별을 폐지하 고 억울한 자가 없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 우 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에서 답 을 찾습니다. 바로 "나와 교회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 위에 하 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넓혀져 갑니다. 오늘 아버지가 나도 일 해야 합니다(요5:17).

복음은 나와 우리 교회 앞에 서 멈춰 서서는 안됩니다. 구원 받았으니 구원시키고,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통로가 되어 베 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pastor.eun@gmail.com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 140편. 능력의 필요성을 깨달음이 아니라 능력을 받는 자로 살아라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 조하셨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읽으면 사람 안에 죄가 들어간다. 또 이어 4장에 보 면 그 죄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는 미움과 분노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죄는 사람을 죽이게 하는 일을 한다. 그로부터 사람 안에 죄가 주인 노릇하여 죄가 솟아나고 그 죄는 세상 끝 날까지 인간을 통하여 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

마귀로부터 온 그 죄는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고 지배하여 자신의 주인이신 창조 주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인간의 인격과 육체에 영향을 끼쳐서 사람에게서 죄가 나 타나는 어둠의 사람, 불행한 사람, 멸망의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받을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3절에 보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이나이다'라고 했 다. 죄에는 사망의, 저주의, 불행하게 하는 독이 있다. 그 사망의 독이 내 안에서 솟아 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가 불행의 피해를 입고 사는 것이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죄가 나의 말을 통하여 흐르고 그것을 듣는 사람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망을 품고 사는 자요, 사망이 솟아나서 각자의 마음을 불행하게 하는 자 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이렇게 불행한 자다. 스스로가 저주의 독이 솟아나는 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아람나라의 군대 장군 나아만과 같이 그는 나병환자였다. 스스 로 그 몸이 죽어가는 죽을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의 지배 를 받고 죄의 영향 안에서 사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다. 회칠한 무덤 안에는 죽음으로 가득함과 같이 영적으로 사람을 보면 죄로 인하여 영원히 불행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를 구하여 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보면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죄의 종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 아야 한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새 생명이신 성령으로 사는 자로 성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살아야 죄에서 자유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알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 여 기도생활을 하여야 한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성령의 감동 을 받는다. 마치 불을 가까이 하면 뜨거움을 받듯이 말이다. 성령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은 감동함을 입히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에 품도록 노력하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능력을 채워 주신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 하여 능력을 입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죄를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을 나타나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입힘을 받는다고 하셨다. 능력을 받으 라. 그리하여야 죄에 포로가 되지 않는다. 죄로부터 학대를 받지 않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누려야 하나 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 씀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것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다. 그러면 반 드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히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포로가 되는 것 이 부끄러운 것이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알고 깨어서 항상 성령 의 능력을 입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별한 사람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까 이 가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 있다. 죄를 대적하고 이기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뿐 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신앙생활을 오래하였다고 해서 늙은 성도가 되지 말라. 이는 부끄러운 것이다. 고목나무가 되지 말라. 생명이 넘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 생을 살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라.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며 주인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능력을 채우는 수고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 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능력에 있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능력으로 죄를 대적하는 자로 살아라.

sangdkim@yahoo.com

82년 8월 설립 이래 34년간 목회를 하신 김상덕 당임 목사님의 은퇴로 본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 목회 계획서 - 본 교단 KAPC(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가 인정하는 정규신학 대학원 이상 졸업 - 이민 목회 담임 경력 5년 이상 - 40세- 55세 연령 - 한국어,영어 사용 - 미국 체류 신분에 적합 1751

- 이력서(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목사 안수 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 자기 소개(성장 배경, 소명, 목회 경험, 가족 소개, 사모 신앙고백서 포함)
- 최근 6개월 내 설교 동영상 2편(CD.또는 USB).혹은 동영상 주소.
- 담임목회를 하는 목사 추천서 2부

제출 마감: 2016년 6월 30일

제출 방법: 우편 발송

제출 주소: Elder. Chris K. Choi 2651 W. Pendalton Ln. La Habra, CA 90631

- 봉투 겉면에 "담임목사 청빙 서류" 게재
- 이력서 윗부분에 연락처 게재
- <mark>- 제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mark>
- 교회 위치는 Orange County에 있는 Fullerton City 인근 La Habra City에 있습니다. 문의: 청빙위원회

E-mail chriskchoi@hanmail.net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복음장로교회 청빙위원회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남가주사랑의교회)



The Korean Christian Press

정말 반갑다(?) 친구야

제가 잘 아는 젊은 목사님이 있 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단 둘이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단

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친한 친구 목사님 가정 이 대서양을 건너 그의 가정을 찾 아왔습니다. 두 명만 살던 집이 갑자기 친구 부부와 그들의 두 자녀가 같이 지내게 되어 식구가 총 여섯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섯 명이 화장실 하나인 집에서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려고 하니 여러모로 불편했지만 서로 헤어져서 살면서 있었던 삶과 목회에 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장기(?) 투숙자들이 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헤어지면 언제어디서 또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데도 목사님은 그다지 슬프거나 섭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 가족을 차에 태우

고 공항으로 가면서 저절로 웃음 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약 4개월 후 겨울이 되었을 때, 친구 목사님 가정이 또 다시 그의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은혜를 베풀어 (?) 두 주는 다른 집에 머물고 나 머지 두 주만 목사님 댁에 머물었 습니다. 이번에도 6명이 화장실 하나 뿐인 조그만 집에서 두 주를 아주 잘 보냈습니다.

그 겨울, 목사님이 살던 지역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하늘 에 구멍이 났다고 할 정도로 온 세 상이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그 런데 집 앞과 차 위에 눈을 치워야 하는 부담을 안고 밖에 나가보니 그의 자동차와 집 입구에 쌓인 눈 이 불도저로 밀어내듯이 말끔히 치워져있었습니다. 누가 그 많은 눈을 치웠을까? 범인은 바로 그의 집에 자주 나타나 몇 주씩 머물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4개월 만에 다시 찾아온 그가 아주 반갑지만 은 않았던 목사님도 그 날만큼은 친구가 집에 머무는 것이 아주 기

했다고 합니다. 여자의 마음이 갈대라고 했나 요? 남자의 마음도 갈대이고 목사 의 마음도 갈대인 것 같습니다. 그 렇게 반가웠던 친구가 별로 반갑 지 않고, 별로 반갑지 않던 친구가 너무나 고맙게 느껴지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못 보면 보고 싶은 마음. 오랜만에 만나면 반가운 마음. 그러나 때로는 헤어져도 별로 섭섭하지 않는 마음.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더 반가운 마음. 상황에 따라 바뀌는 마음, 이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누가 다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 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느니라'(잠언17:17).

푸/른/초/장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기도원 담임)



지금음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독교의 위기를 남의 일처럼 보고 만 있을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지 난시간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만 큼 그 어느 것과 다른 야무진 결단 이 필요합니다. 결정의 사전적 의 미는 행동이니 태도를 분명하게 정 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결정 한 것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행동 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그래 서 오늘 성경에서 결단에 대해 아 브라함에게 배웁니다.

1. 우리도 떠나는 결단을 해야합니다.

떠나야 할 땅은 보장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땅입니다. 죄를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엉뚱한 곳에 머물면서 막연히 먼 산만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은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일입니다.

1)말씀 따라 떠나야 합니다(창

사람들의 말이나 주변 형편이나 분위기에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머물 수 없어서 어 쩔 수 없이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 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머물고 싶은 화 려하고 편한 환경에서 친족들과 헤 어져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람과 상의할 일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일입니다(행17:30). 2) 모르지만 떠나야 합니다(히 1:8).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지라도 분명하게 떠나라고 하시니 떠난 것입니다. 내일은 몰라도 오 늘 주어진 하늘의 결정을 따른 것 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여 하란 땅을 떠나 기대 속에 머물던 가나안 땅 에 심한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창12:10). 확신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말과 달라 헛되지 않습니다. 혹고난이 있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벧전5:10). 이 일로 인해 귀감이 될 만한 하란을 떠났던 결단이 우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어려워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2)가정을 위한 일입니다(창 12:15).

아브라함은 하란 땅으로 되돌아 가는 것보다 애굽 땅이 낫다고 생 각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가 족을 위한 것이라면 멋진 설득력이 있습니다. 심한 기근에 궁여지책이 사랑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은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온 결단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 지만 머물던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이든 어리석은 일로 자신과 가정과 이웃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떠나는 결단과 함 께 우리는 머물러 있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3. 돌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창13:1).

부정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도 종살이했던 애굽 땅으로 끊임없이

며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 물었어 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욜

2)모든 것이 다 돌아와야 합니

결단은 전 인격적이고 전 생활적 이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세상 에 남겨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물질도 다 돌아와야 합니 다. 몸만 성전에 돌아오는 것으로 는 안됩니다(계2:5), 안하는 것은 아니라도 하는 것도 아닌 것은 '다' 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의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돌아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

3)결단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 으로 확인됩니다.

확실한 결단은 예배와 삶으로 나타납니다(창13:4).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의 확실한 변화는 예 배의 삶에 있습니다. 진지한 자세 의 예배에 눈물 젖은 신앙이, 선 포되는 말씀에는 깨달음과 감격 이 있습니다. 다시 주의 이름을 부 르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감사함으 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도 모이기에 힘쓰고 어려운 생활에 도 전적으로 헌신하고 더 많은 시 간을 드리고자 했던 그때로 돌아가 야 합니다. 좀 먼길이라도 돌아가 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벗어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 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 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 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을 섬기라'(삼상 7:3).

삶의 결단

(창세기 13:1-3)

하나님께서 오늘 떠나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인도하십니다(시119:105).

3)이제라도 떠나야 합니다(창 12:4).

결단에는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오늘이 가장 늦은 날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보면 오늘이 가 장 빠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늦었 다고 핑계 대는 이들에게 이제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는 아닙니다(고후

불확실한 내일을 전능하신 하나 그는 님께 맡기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 더욱 씀을 따라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 있는 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지금 않기를 결단해야 합니다(롬13:14). 다.

2. 어려워도 머물러 있기를 결단 12:18, 19).

이 의심될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 다. 떠날 수 없던 곳을 떠났던 대단 한 결단도 갈등할 만한 문제를 겪 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피할 수 없 는 문제를 만나면 맞서서 해결하든 지 도망하든지 합니다. 아브라함은 문제에서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당 면한 문제에 도움 될 듯한 풍요롭 고 물이 많은 애굽 땅으로 갔습니 다. 하지만 살아보겠다고 애굽 땅 간 그는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 고, 자신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는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래도 가 나안 땅으로 돌아갈 마음은 없었던 그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애굽 땅에 머무르려 합니다(창12:13).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것이 지금 상황보다는 더 나을 듯합니

1)자신을 위한 일입니다(창

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가정은 풍비박산이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가정을 위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가정을 책임져주실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무너질 때 두 정탐꾼을 살려준 기생 라합이 얻어낸 약조는 하나님이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약속이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가정을 위한 행복의 약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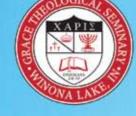
3)이웃을 위한 일입니다(창 12:17).

바로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생각지 못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그들이 행복해지게 해야 합니다. 이웃

돌아가려고 했던 광야에서의 이스 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에 종노릇하던 때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신앙의 장담이 위험하고(잠18:12), 선줄로 아는 자기착각이 넘어지게 합니다(고전 10:12).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진솔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 고 회개하여 돌아서면 됩니다. 아 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 라 가족들과 짐승 떼를 몰고 애굽 땅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 다. 겉보기와 달랐던 애굽 땅은 그 가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있 을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곳 이었습니다.

1)기회를 따라 결단해야 합니다. 지난 세월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후회만 하다가 아직도 남아있는 기 회마저 잃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진작 가나안 땅에 머무르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THEOLOGICALSEMINARY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하므과 겨거은 겨비하 보은주의 시하교(ATS 저히의)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시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다. 독선 (1) SEVIS 1-20 POINT 할정, (2) PAPSA(천정정무역사급)시원기공(정무전사 이정), (3) 작용정역급 제도 무진 모하고르하 바사과정(D ICS



조어시(Commencement Ceremony)

2016년 5월 졸업식

1. 졸업식(Commencement Ceremony)

일시: 2016년 5월 7일(토) 오전 9시 장소: Manahan Orthopaedic Capital Center (그레이스 대학 캠퍼스 내)

2. 졸업 논문 발표

일시: 2016년 5월 5일(목) 오전 9시 장소: William Male Center(신학교 건물)

3. 총장주관 만찬(President's Luncheon) 일시: 2016년 5월 6일(금) 12:00-1:30 pm (졸업식 리해설 후) 자스: Westminster Hall(에스트 미스터 후)

장소: Westminster Hall(웨스트 민스터 홀)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자녀들의 안전한 미래, 신앙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정의와 가정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6월 7일 꼭 투표하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과 그 정부가 자 신에게 주어진 정치적 권력과 권한 을 남용하면서, 지난 8년 동안 미국 안에서는 미국의 236년 역사상 이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 는 목격하고 아파했습니다.

이번 선거 때 어떤 성경적 가치 관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할까요?

△동성결혼합법화 폐지: 결혼의 정의를 다시 남,녀의 연합으로 바꿀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와 Political Party(정당)을 뽑아야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 회복: 수억 명 의 죄 없는 태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도록 Roe vs Wade(낙태) 법 안 폐지 또는 수정할 후보자 또는 정당이 절실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자유 회복 절 실: 지금 오바마 정부에 이해 크리 스천 신앙은 "교회안"에만 묶여있 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0세가 다된 할머니 꽃집과 집안이 다 날 아가고, 케익집 주인은 집값보다 비싼 벌금을 물어야하고, 동성결혼 주례를 해주지 못한다고 했다고 목 사님부부들이 감옥을 가고, 5살짜 리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교육을 받 는 것에 질문했다고 부모는 감옥행 그리고 아이는 정학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난 3-4년 동안 수천 케이 스이고 이러한 심각한 크리스천들 에 대한 역차별들은 더 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국가 보안 강화시키는 것-친이 슬람에서 이슬람 국가가 될 위험 에 빠지는 미국!

크리스천에 대한 역차별과 핍박 은 늘어나고 있지만 친이슬람 정 책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 립학교 안에서 이슬람을 존중하고 배워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고 있 고 이미 많은 대학가들안에서는 친 이슬람 흐름이 학생들 사이에 쇠뇌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와 힐러리는 이슬람은 ISIS 테러와 상관없는 " 평화의 종교"라고 계속 시민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자와 어떤 당 (Political Party)이 위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공화당으로 나온 트럼프(Donald Trump)는 말만 공화당이지 이 사 람은 보수파도 하나님을 아는 사 람이 아니라는 전력(Track of Record)과 증거가 충분히 많이 있습 니다. 따라서 트럼프를 뽑는다는 것이 도박과도 같은 것이기에 진짜 크리스천 보수파들은 트럼프를 뽑 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7-8년간 사악한 법안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쏟 아 부은 민주당의 후보자들 힐러 리(Hilary Clinton)나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는 어떨까요?

힐러리 클린턴은 지금까지 오바 마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친동성애, 친이슬람 성향이며, 문란한 성교육을 지지하 고, 국가안보에 대한 거짓말로 소 송이 걸려있습니다.

버니 샌더스는 Child-Sex, 어 린이와의 성관계도 "성취향"이 될 수 있다는 글을 쓴 사람을 옹호하 는 글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렸 다가 문제가 되어 내렸는데, 샌더 스는 이미 1972년 자신이 쓴 책, "Woman Fantasizes about being raped – 여자는 3명 이상의 남자들 에게 강간 당하는 것을 원하는 꿈 을 꾼다" 때문에 이미 문제가 된 적 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이슬람화 할뿐 아니라 " 그 다음"을 지향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와 힐러리 정책

오바마 대통령과 그 정부는 2009 년부터 지금까지 친이슬람 정책을 계속 해왔습니다. 미국 최초의 무 슬림 U.S. Congressman-Keith 11월이 되기까지 경주는 계속 됩 Ellison(민주당, 미네소타)을 뽑 았으며 미국최초의 무슬림으로 Andre Carson(민주당)을 House Committee Intelligence로 뽑았습 니다. 지금 백악관에는 무슬림 정 치인, 법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슬람법인 샤리아법(Sharia Law) 을 미국 헌법으로 올리고자 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노력은 그들의 친이슬람 정책을 막고자 하 는 공화당과의 치열한 전쟁으로 계 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슬 람 단체인 Council on American-

Islamic Relations(CAIR)이 무슬림 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 아, 뉴욕, 일리노이즈, 플로리다, 텍 사스, 버지니아 주에 사는 무슬림 유권자들을 상대로 어떤 대통령 후 보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 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 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민주당) 52%, 버 니 샌더스(민주당) 22%, 도날드 트 럼프(공화당) 7.5%

민주당은 2012년 이미 Democratic Platform(민주당 정당)에 친 동성애, 의무적인 낙태, 모든 종교 (친이슬람을 그렇게 적음) 존중을 합법화 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선 포하였습니다. 따라서 힐러리나 샌 더스 후보자를 뽑는 분들은 아마도 지금의 오바마 정부에 만족하고 앞 으로 미국이 더 깊이 "친동성애, 친 이슬람, 반기독교, 문란한 성교육 정책"으로 우리 자녀들이 망가지 는 것을 보고 싶은 분들이 힐러리 나 샌더스를 뽑으면 될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예 비선거 때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 해주세요!!

지금 예비선거가 남아있는 캘리 포니아와 그 외 몇 주에 남아있는 진정한 보수 크리스천들과 기독교 단체, 리더들은 얼마 전에 물러난 테드 크루즈(Ted Cruz)를 예비선 거 때 뽑을 계획이라고 알립니다.

참고로, 예비선거는 후보자가 물 러났어도 후보자들의 리스트는 예 비선거 후보자에서 내려지지 않고 시민들에게는 그들을 계속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에 시 민들의 투표에 따라 후보자들은

테드 크루즈는 2016년 대통령 후 보자로 나온 사람 중에서 출애굽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국가 이 갖춘 후보자며, 공화당 안에서 도 무서워 할만큼 깨끗한 정치적 전력과 명성이 높은 후보자입니 다. 단지, 그는 트럼프처럼 미디어 와 언론에 수천억씩 돈을 쓸 수 있 는 자금이 없는 정치인이기에 자금 조달로 더 이상 예비선거 경주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GOP에서는 테드 크루즈의 실

력과 전력, 성품을 귀하게 보기에 지금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비선거 때, 하나님 께서 기적을 베풀어주신다면 90% 가 민주당으로 결집된 캘리포니아 에서 테드 크루즈가 필요한 충분한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테드 크루즈 는 다시 11월에 경주를 하도록 나 오겠다는 다짐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썩은 사과 vs 독 이 든 사과" 중 선택하세요

"썩은 사과"는 트럼프이고, "독 이 든 사과"는 힐러리와 샌더스입 니다. 썩은 곳은 도려내고 먹으면 살지만 독이 든 사과는 사과 어디 를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썩은 사과와 썩은 부분이 있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이 독으 로 가득 찬 지금의 정부(민주당)보 다는 가정과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양심 있는 정치인들이 있기에 희망 과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독이 든 것은 이미 독이 가득하 기에 도려내도 독은 계속 있고, 고 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비선거, 기도하시고 꼭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으로 여러 분 자녀의 미래, 가정의 안전, 교회 의 안전,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선 택을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할 날짜

유권자 등록: 5월 31일까지 우편 으로 보내세요. Political Party(정 당)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유권 자 등록을 다시 하면 됩니다. 온라 인 등록이 편하게 한글로 되어 있 으니 참조하세요.

http://registertovote.ca.gov/ 한글을 선택하세요.

Vote-By-Mail(집에서 부치는 투표): 5월 31일까지 부치세요. 못 부치신분들은 6월 7일 직접 투표장 소에 가셔서 drop하세요.

[편집자: 이번 글의 내용에 대한 질문은 Tvnext.org@gmail.com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내년에 이집트 성지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IS에 의해 살해된 21명의 이집트의 콥트 교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콥트교는 어떻게 생긴 것이며 보 다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토렌스에서 이희은

A: 이집트 인구의 90% 가량이 현재 이슬람 수니파인 이슬람 국가 입니다. 이집트의 기독교 종파를 콥트교라고도 합니다. 콥트라는 말 은 아랍어의 깁트를 영어로 표현한 것으로 아랍어로 깁트는 이집트 에 사는 원주민을 말합니다. 콥트정교회 신도들 수는 현재 이집트 전 체 인구의 12-15%, 최대 1200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 다. 이집트에서는 현대에도 수천 개의 교회에서 예배가 열리고 있습 니다. 콥트 정교회 신도들의 숫자는 20세기 후반기부터 증가세에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집트 콥트정교회는 아프 리카 각국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근거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

작년에 이집트의 콥트 교도 21명이 IS에 의해 목베임을 당해 죽었 습니다. 타와드로스 2세는 성명을 통해 "그들은 죽음이 임박한 순간 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으며, "IS는 이슬람을 믿지 않 는 이들에게 공포심을 심기 위한 의도로 동영상을 공개했으나, 콥트 교인들이 보여준 용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콥트교회, AD60년 마가의 선교에서 시작, 역사 자체가 고난의 연속

주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집트 기독교는 1세기 중엽인 AD 60년 마가의 선교에서 시작됐 습니다. 이후 사막의 수도사들에 의해 수도원 운동이 확산됐고 이집 트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오리겐과 아우구스티누스 등 당 대 최고의 신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또 아타나시우스와 키릴로스 같 은 걸출한 지도자들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3-4세 기 교회의 스승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 출신 클레멘트와 그의 제자 오리겐 등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하지만 3세기 말 로마로부터 피비 린내 나는 핍박을 받으면서 수많은 콥트교도들이 순교했습니다. 핍 박은 이른바 '은자(隱者)'의 삶을 발전시켜 사막의 수도원운동 등 독 특한 콥트 기독교의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총신대 라은성 교수는 "콥트교회 역사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다' 며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이집트 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4-5 세기에는 유대파와 이교도 등과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이 지 배적인 이집트에서의 기독교는 주류 무슬림들에게 극도의 차별을 받 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카이로 부근 협곡 '성 시 몬 동굴성당' 부근에 '자발린'(쓰레기 마을)입니다. 무슬림들이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사는 마을인데 3만5천이라는 꽤 규모가 큰 마 을입니다. 내년에 이집트에 가면 그곳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콥트정교회는 풍습이 독특한데, 콥트교회에서 지키는 성탄절은 1 월 7일이고 성탄 40일 전부터 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또 부활절이 오기 전 55일간 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낮에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 고, 육식을 피하고 올리브유로 요리한 음식만 먹습니다. 또 콥트정교 회 교인들은 보통 태어나 어릴 때부터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기억하 는 의미, 그리고 일평생 기독교인으로의 신앙과 정체성을 유지하겠 다는 의미로 손목 안쪽에 하늘색 십자가 문신을 새기고 평생을 산다 고 합니다.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잭슨빌 한인장로교회는 확고한 믿음과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고,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교회를 섬기기를 열망하는 담임목사를 모십니다. 저희 교회는 38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서 미국장로교단(PCUSA) 소속이며, Florida주의 북부 중심 도시인 Jacksonville에 있습니다. (교회 사역소개서(Ministry Information Form)는 pcusa.org/clc 클릭 후, MIF ID: P0310739를 참조).

제출서류 (한글과 영문)

- · PCUSA PIF
- · 본인 및 가족 소개서 (2 Pages 이내), 가족사진
- · 신앙여정과 신앙고백서 (각 2 Pages 이내) · 목회비전 (각 2 Pages 이내)
- · 신학교 졸업증명서, 목사안수 증명서(또는 졸업예정 일자와 CPM의 목사후보 증명서)
- ·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CD/DVD 2개, 또는 동영상 주소
- · 3명의 추천서
- · 영주권 소유하신 분
- * 제출 서류/자료는 비밀보장 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
- * 1차 선정자에게는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격:** · 현재 PCUSA 목사 또는 가입이 가능하신 목사 · 정규 신학대학원 M.Div 학위 또는 그 이상 학력 소유하신 분
- · 한국어와 영어로 소통이 자유로운 분

Homepage: jaxkpc.org

보내실 곳: Billy Song (Email: billysongsos@gmail.com) Chair of the Pastor Nominating Committee 4591 Ecton Lane E., Jacksonville, FL 32246

잭슨빌 한인장로교회 (전화: 904-355-9793) 弧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Jacksonville 856 Margaret Street, Jacksonville, FL 32204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한글: ① 교회(기관) 이름 영문: ② 교 회(기관) 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Fax.(한글: 영문: 4 목사, 전도사, 기관장 5 사택주소 6 사택전화 & 팩스 Tel.(Fax.(7 E-mail Add. @ 8 Web Add. http:// 9 소속교단(정확하게)

[4] 번은 해당사항에○표시를 하세요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십시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라와스(Rawas)



164,000 명의 라와 스족은 인 도네시아 의 수마트

(Sumatra) 동쪽 해안 늪지대에

흩어져 사는 쿠부(Kubu)족이라고 알려진 꽤 큰 집단에 속하는 종족 이다. 쿠부족은 유랑하는 니그리 토(Negrito)족의 한 작은 씨족의 후손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설에 의하면 고대에 수마트라 의 해변은 정기적으로 해적들과

그 가족들의 방문을 받았다고 한 다. 이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해 적 오누이가 근친상간을 해 여자 아이가 임신했다. 그들은 해적들 에게 저주를 받고, 근해의 덤불에 버려졌고, 처음으로 랄란 강에 쿠 부족 부락을 세우게 됐다.

17세기에 라와스족은 수마트라 남부의 팔렘방에서 온 라투 세누 훈(Ratu Senuhun) 왕자에게 정복 당했다. 그 때부터 최근까지 라와 스족은 말레이시아 사람들과는 어 떤 접촉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말레이시아 팔렘방의 언어, 사회 구조, 종교는 받아들였다.

삶의 모습

쿠부족처럼 라와스족은 숲에 살 며 여러 강 근처 늪지대에서 주로 발견된다. 대부분의 라와족 들은 얌(yam), 옥수수, 쌀, 사탕수수를 경작한다. 이들은 근면한 노동자 들은 아니기에 들판이 잘 관리되 지는 않는다. 음식물은 대부분 정 글의 생산물과 작은 사냥감으로 충당된다. 기본적인 식단은 멧돼 지, 물고기, 원숭이, 바나나 그리고 얌이다.

라와스족은 "시러프(sirup)"라고 불리는 정착된 마을에서 산다. 집 들은 벽이 없이 대나무와 잎들로 대지 위에 지어져 있다. 보통 한 촌 락이 세 채에서 다섯 채 정도의 집 들로 구성된다. 연장자가 추장으 로 받들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

모든 라와스족들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이름은 같은 시러프의 구성원들에게만 알려진다. 다른 촌락의 사람들은 "저 작은 강의 사 람들"로만 불릴 뿐이다. 한 정착 촌 락의 사람들이 다른 촌락의 사람 들과 접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면 축제도 없고, 성인식같은 의식적 행사도 없고, 다른 공동체 모임이 없기 때문이다.

라와스족이 이웃인 말레이 사람 들과 갖는 드문 접촉은 전통적으 로 조용한 무역을 통해서였다. 예 를 들면, 라와스족 사람들이 말레 이 무역상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자 신들의 물건을 가져다 놓았다. 그 러면 무역상들은 그들이 교환하려 고 하는 물건을 놓고는 안전한 거 리로 물러나게 된다. 만약 거래가 만족스러우면 라와스족 사람들은 놓여진 물건을 가지고 숲 속으로 사라진다. 이러한 무역의 형태가 점차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전통과 물질적인 문화가 간소함

에 따라, 라와스 사회는 사회적 및 종교적 발전에서 부족한 면을 나 타낸다. 그들에게는 어떤 종류라 도 음악악기나 춤 같은 것이 알려 진 게 없다.

쿠부족이 모슬렘으로 구분되기 는 하지만, 그들은 아직 치료의식 같은 다양한 "정령숭배"적인 제사 를 시행하고 있다. "샤만(shaman)" 이라고 불리는 치료사는 그들을 위해 영혼들에게 제사를 드린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불행하게도 라와스족이 자신들 의 언어로 볼 수 있는 기독교적 자 료가 없다. 그러나 언어학자들이 현재 성경을 라와스어로 번역하고 있다. 이 종족 집단을 위해 사역하 는 선교기관이 없기 때문에, 효과 적인 교회성장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한 상세한 연구가 긴급하다.

이 지역을 복음화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기독교인을 향한 지역 모슬렘들의 적개심이 다.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 때문에 종종 핍박을 당한다. 다른 문제는 일부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이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보임으 로써 라와스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갖는 우리의 책임 이다. 오래된 전통이 복음전파를 막는 것처럼 보인다할지라도, 하 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전통보다 도 더 강하시다. 아마도 의료기술 과 농업 훈련 경험을 가진 사람들 이 라와스족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임자일 것이다.

Internet News

전 세계 6887개 언어 중 60%는 번역된 성경 없어

전 세계 6887개 언 어 중 번역된 성경이 없는 언어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세계성서공회 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UBS)는 2015년 12월 말 기준



으로 단편(쪽복음) 이상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수는 총 2935개이며, 성경번역이 없는 언어는 3952개라고 23일 밝혔다.

성경이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4억9000여명 으로, 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질 수 있도 록 한국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

번역된 성경이 있는 언어 중 지난해 성경전서가 번 역된 언어는 563개다. 이는 2014년보다 21개가 늘어 난 수치다. 지난해 신약전서가 번역된 언어는 1334개, 단편(쪽 복음)이 번역된 언어는 1038개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지난해 출간된 새로운 번역본 및 개정본 은 20개, 해설 성경은 2개였다.

UBS는 2013년부터 '100개의 성서 번역 완료 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5 년 말 기준 90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고 이 가운데 53개 언어로 된 성경이 출판됐다. 이 가운데 미얀마의 '쿠미 친 성경'은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제작·출판됐 다. 쿠미 친 신약성경은 1958년 출판됐으나 재정적 어 려움 때문에 구역성경 번역·출판이 중단됐다가 2001 년 한국교회의 도움으로 비로소 성경전서의 번역·출 판이 완료됐다. 라이베리아에선 에볼라 등으로 수많 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와중에도 성경 번역이 진행돼 두 가지 언어의 단편 성경이 출간됐다.

필리핀에서 한인 선교사 피살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한인 선 교사가 피살됐다.

주 필리핀 한국대 사관은 한국인 선교 사 심재석(57) 씨가 20일 새벽 필리핀 마 닐라 부근에서 가스



통으로 보이는 둔기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 전 8시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지 영사협력관과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심 선교 사는 이날 새벽 4시 30분경 교회 사택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이던 괴한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둔기로 가 격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벌어진 직후 심 선교사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사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선교사는 2000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중부 연회 인천동지방 지구촌선교교회 파송으로 필리핀 메 트로마닐라 동북부지역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빈 민촌 구제 사역과 교육 선교 사역을 펼쳐왔다. 유가족 으로는 아내 안정윤(55) 선교사와 남매 심하영(20)군, 심하은(19)양을 두고 있다.

사고 소식을 접한 필리핀선교사회는 긴급대책반을 꾸려 사고수습과 장례준비에 나섰다. 현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직원과 현지 경찰, 김승환 필리핀한인선 교사회장 등이 참관한 가운데 현장 검증을 마쳤고, 시 신은 안타폴로시티 소재 '헤븐 오브 엔젤스(heaven of angels)' 장례식장으로 운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 졌다.

심 선교사의 소속 교단인 기감 선교국도 부장 김영 주 목사를 현지에 급파하기로 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 서고 있다. 김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6년째 은혜 가운데 사역을 펼치던 심 선교사의 갑작스런 사 고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오늘(20일) 밤 현지로 가서 세부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는 대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피살된 것은 올들어 이번이 세 번째이며 지난해에는 한국인 11명이 살해됐다. 김 재신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사건 직후 긴급 한인안전 대책 합동회의를 열고 지속적인 현지 교민 피해에 따 른 교민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오클라호마 낙태금지법 통과

미국 오클라호마 주 의회가 19일 낙태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의회는 이날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3 표, 반대 12표로 가결 했다.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장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메리 폴린 오클라호마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낙 태를 허용하는 미 연방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는 낙태 금지법이 발효되게 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우 대 웨이드' 판결(임신 6개월 전까지 임신 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인정)로 낙태를 합법화 했다.

폴린 주지사가 낙태 반대론자라는 점에서 서명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폴린 주지사는 낙태 여성에 대 한 처벌을 거론한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후보군에도 올라 있다.

미국의 주 정부들 사이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낙태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됐고, 이로 인해 많은 낙태 시술 기관이 폐업했다. 그러나 뉴욕의 낙태권리 지지 단체인 출산권리센터(CRR)는 "오클라호마 주의회의 결정은 위헌적이며, 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모욕"이라 고 비판했다.

앞서 유타, 루이지애나 주에서도 오클라호마 주에 서와 같은 낙태 금지 법안이 통과됐으나, 모두 상급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시행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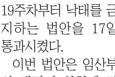
SC, '임신19주 이후 낙태금지' 법안 퉁과

STOP

ABORTION

WON

미국 사우스캐롤라 이나 주 의회가 임신 19주차부터 낙태를 금 지하는 법안을 17일



이번 법안은 임산부 의 생명이 위험에 처 해있거나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임신 19주차부터 모든 낙태를 금지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태아 이상'의 의미를 엄격하 게 해석해 태아가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하원은 이번 법안을 찬성 79, 반대 29로 의결했고, 상원에서는 찬성 36, 반대 9로 승인했다. 법안은 현재 니키 헤일리 주지사의 서명만 을 남겨두고 있다. 이로써 미국에서 제한적으로 낙태 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주는 17개로 늘어났다.

이들 가운데 12개주에서 법안이 발효됐으며 3개주 에서는 법안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아 직 제한적 낙태금지 법안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 놓지 않은 상태다.

법안을 지지한 웬디 내니 공화당 의원은 이번 법안 이 궁극적으로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것으로 나아가 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생명은 잉태된 순간 부터 시작된다고 믿고 있다"며 "나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모든 일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 남녀 임금격차, 고학력 전문직일수록 커

미국에서 고학력·고 소득 직종일수록 남성 과 여성의 임금 격차 가 크게 벌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 트저널(WSJ)은 446개



직종의 남성과 여성 임금을 분석한 결과 의사, 금융직 등 소위 엘리트로 불리는 직종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더 컸다고 17일 보 도했다.

WSJ에 따르면 남자 의사의 연봉은 평균 21만 달러 에 달하는 데 비해 여자 의사의 연봉은 이의 64%인 13만5천 달러에 그쳤다. 또 다른 고소득 업종인 투자 자문역의 경우 남자는 10만 달러를 받았지만 여자의 연봉은 6만2천 달러에 불과했다.

지난 2014년 미 노동부 통계에서 학사 학위를 가 진 미국 여성이 동일 학력 남성 임금의 76%를 받고, 고졸 이하 학력에서는 그 수치가 79%였던 것을 감안 하면 고학력·고소득 직종의 성별 임금 격차가 상대 적으로 큰 것이다.

이는 전문직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대체인력을 찾기가 어려워서 여성의 출산과 육아가 경력 단절이 나 근로시간 축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성 은 아이를 낳으면서 경력이 단절되고, 또 육아를 위 해 추가 근무를 포기한다"며 "그래서 임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고소득 직종인 경 우 아이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양해해주는 경우가 거 의 없다"고 덧붙였다.

골딘 교수는 시카고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졸업 한 남녀학생들이 졸업 후 동일한 임금을 받았지만 10년 후 여성은 남성의 57%를 받았다는 내용을 담 은 연구를 지난 2010년 발표한 바 있다

전문직종 중에서도 임금 격차가 가장 두드러진 분 야는 금융과 의료였다. 금융직의 경우 여성들이 고위 험 고수익의 일을 맡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 자를 선호하면서 성과급이 적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 다는 분석이다. 의사 역시 여성들이 연봉이 낮은 소 아과 등을 선택하는 것도 연봉을 낮추는 요인이다.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 해선 출산 등으로 인한 유급 휴가를 늘리고, 새로운 양육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WSJ는 전

IVF, 75년 만에 첫 아시아계 새 대표

미국 대학생 선교 단체인 IVF(Inv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가 75년 역사상 처음으로 아 시아계 대표를 맞는 다. 주인공은 대만계 미국인 톰 린(43·사



진)이다. 현재 부대표를 맞고 있는 그가 8월 취임하 면 북미 선교단체 중에서는 최초의 비백인계 지도자 가 된다.

미국 IVF는 그동안 청년 선교대회인 어바나콘퍼런 스와 소수계 리더를 개발하는 내부 프로그램을 운용 하는 등 다민족 사역을 추구해왔다. 린 부대표는 5년 간 이들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일했다. 그는 "IVF 리 더십은 남성과 여성, 소수인종 등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다"며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배우며 성장하고 있 다. 지금은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린 부대표는 1994-2001년 하버드대와 보스턴대 학생 시절, 새로운 학생모임을 주도하는 등 캠퍼스 사역에 힘써왔다. 이후 25개국 도시를 위한 단기팀 프로젝트와 유학생 사역, 학생 선교훈련, 100개국 IVF 지부와의 협력 등을 주도했다.

세계선교계에서는 이미 아시아나 남미 출신 리더 들이 속속 회장이나 대표직을 맡으면서 비서구권 리 더십이 약진하고 있다. 서구 중심의 선교 리더십이 비서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 다니면 오래 산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상 교회에 간 여성 이 그렇지 않은 여 성보다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언론 인디펜



하버드대 공중보건 대학원 연구결과를 인용해 교회에 주기적으로 가는 사람이 전혀 가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5개월을 더 사 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미국의학 협회 내과학회지(JAMA Internal Medicine)에 실렸 다.

연구는 미국간호보건연구(US Nurses' Health Study)가 수집한 중년여성 7만4000명의 기록을 토 대로 했다. 연구진은 "종교적 행사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참석한 교인 이 사망률도 33% 낮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가 사람의 습관과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주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에 게 연결고리를 찾아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배 를 드리는 것과 사망률과의 연관성에는 우울증, 흡 연, 사회적·정서적인 지지, 긍정적인 마음가짐 등이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예배와 건강의 연관성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 조했다.

모든 의사가 '건강을 위해 교회에 가야한다'는 처 방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신앙생활과 건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진은 "신앙을 가 진 사람이 '의미 있는 사회 참여'의 한 형태로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고무적이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집단 평균연령은 60세였고 16년간 이어진 연구 중 1만3500명이 사망했다. 연구진은 "모집단이 중년 여성이었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와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남성이나 청년층, 유대교, 불 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다른 종교인에게도 통계적 으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

힐러리 · 트럼프의 최대 난제는 '역대급 비호감' 극복하기

미국 공화당과 민 주당의 사실상의 대 선후보인 도널드 트 럼프와 힐러리 클린 턴 전 국무장관은 역 대 최고의 '비호감' 후 보로 꼽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

널(WSJ)은 두 후보가 이미지를 개선하려면 모두 자 당 유권자들부터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20일 분 석했다.

WSJ과 NBC방송이 지난 4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56%로, 긍정 적 시각(32%)보다 24%포인트 높았다. 트럼프는 부 정적 시각이 65%에 달했으나 긍정적 시각은 24%에 불과했다.

미국 폭스뉴스가 지난 1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는 클린턴 전 장관의 비호감도가 트럼프를 넘어섰다. 응답자의 61%가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 비호감이라 고 답했다. 트럼프의 비호감 응답률은 56%로 지난달 보다 9%포인트 줄었다.

WSJ는 최근 수십 년 사이 대선후보가 거의 확정된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두 사람만큼 높은 비호감도를 보이는 후보는 없었다고 평가하면서, 과거 대선에서 이미지 반전을 이룬 후보가 있기는 했지만 트럼프와 힐러리의 경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2년 대선 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4월 11%였 던 비호감도를 11월 대선 직전에는 7%의 호감도로 끌어올렸지만, 당시 그는 응답자의 4분의 1 가량이 그를 모른다고 할 만큼 상대적으로 신선한 인물이었

하지만 트럼프와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현재 인지 도가 거의 100%에 달하기 때문에 오는 11월까지 비 호감도를 낮출 여지는 별로 없다고 WSJ는 내다봤다.

WSJ는 역대 선거에서 가장 큰 호감도 개선은 각 후보의 소속 정당의 당원들로부터 이룰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면서, 1992년 대선 이래 당선된 모든 후 보가 자당에서 최소 80%의 호감도를 기록했다고 강 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공화당 유 권자 사이에서 트럼프의 호감도가 지난 8월 이후 최 고치를 기록했다고 19일 보도했다.

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 당 유권자와 공화당 성향 무당파층에서 트럼프의 호 감도가 66%로 집계됐다. 지난 3월 42%를 찍었던 비 호감도는 12%포인트 하락,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7일 1천55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2. 민찬호(1878-1954)

민 찬 호 는 1878년 황해도 평 산에서 태 어났다. 그 의 한자식 이름은 閔 贊鎬 또는 閔燦鎬다. 이승만과

함께 배재

학당 재학 중 그는 중국 상해의 협성회와 YMCA에 관여하여 기독교의 국제 화에 눈이 떴다. 이후 그는 미국 북 감리교 선교부의 조지 존스 선교 사가 운영하는 신학회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된다.

민찬호는 1905년 8월 하와이 한

인감리교회로 파송되 었다. 미국인에게는 본 교회가 '오하후 호 놀룰루 정동교회'로 알려져 있다. 그는 홍 승하에 이어 제2대 담 임교역자가 되어 한인 이민자의 삶의 중심에 서 미래에 대한 용기 와 희망을 주었다. 파 송된 지 1년 만에 민 찬호는 펀치볼 스트리 트에 예배당을 마련했

다. 총 1만8천불 중 한인 동포들이 한 헌금은 3천불이나 되었다, 이로 써 예배당을 중심으로 한인들의 숙원이었던 한인거주지가 조성된 다. 본 교회는 1965년에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로 변신하여 오늘에 이른다.



민찬호

하와이 한인감리교회(1910) 민찬호는 와이파후, 에와, 와일 루아, 가록구 등 하와이 군도에 산 재한 36개 처의 교회와 전도소를 섬겼다. 1907년 보고에 따르면 하 와이에 약 40개의 한인전도소가 있었고 자치적인 교회가 15개 처 에 이르렀다. 그의 사역 기간 중 설 립한 예배당은 6개 처나 된다. 교 회가 부흥되면서 한인들의 생활도 향상되어 도박, 주색 그리고 아편 까지 피우던 사람들이 이전의 동 료들을 적극 그리스도에게로 이끄 는데 앞장섰다. '하와이 한인기독 교 회보'의 주필이었던 민찬호는 1906년에 한국으로부터 국문활자 를 도입하여 복사판으로 내던 회 보가 활판 인쇄됨으로 교회의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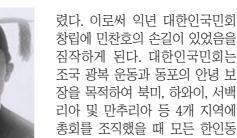
할은 확대되었다.

하와이 한인감리교회(1910)

민찬호는 복음 사역 외에도 문 화 명령에도 관여하였으니 민족 지도자 내지 재미 독립운동가라는 별명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의 첫 사역은 1905년에 한국인들의 상호 친목과 국권회복을 목적한 한인상 조회의 조직이었다. 부회장으로 선임된 그는 회장 송헌주, 다른 부 회장 박윤 성, 서기 김성권, 재 무 이지성, 명예 재무 위드맨 목 사와 함께 활동했다.

> 1906년 USC 졸업생 민찬호 설립한 한

인기숙학 교에도 민찬호의 공헌이 있다. 각 지방으로부터 온 자제를 기숙시켜 저녁마다 국어를 가르쳤고, 연령 관계로 소학교에 입학할 수 없던 소년들을 모아 중학교 입학 준비 를 목적한 속성과를 운영하였다. 그는 학감으로 4년간 재직하면서



렸다. 이로써 익년 대한인국민회 창립에 민찬호의 손길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대한인국민회는 조국 광복 운동과 동포의 안녕 보 리아 및 만추리아 등 4개 지역에



하와이한인기독교회

포는 의무금을 납부하였다. 본 대

한인국민회 초대 회장은 정재관이

었다. 1910년경 평양 숭실대학 대

표 14명이 호놀룰루와 오아후의

한인을 방문했을 때 민찬호는 그

들을 인솔하고 한인들의 실상을

소개하면서 민족의 하나됨을 추구

약 6년의 하와이 사역을 종료하

고 민찬호는 1911년 3월 미국 로

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남가주 대학

아 한인 기도처를 설립하면서 본 교회가 조직되었다. 민찬호는 신 흥우에 이어 두 번째 목회자가 되 어 학업과 교회 사역을 병행했다.

그런데 1910년 한일합방이후 미 국 남감리교회의 친일적인 경향에 흩어지려는 본 교회 교인들이 민

찬호의 노력으로 1912 년 9월 LA 한인장로교 회에 병합하여 본 장 로교회 목회자가 되었 다. 당시 본 장로교회 교역자였던 방화중 전 도사가 부친의 서거 소 식에 1912년 2월에 내 한했기 때문에 교역자 가 공석이었고, 미국장 로교회와 미국남감리

한인 동포를 목적한 민찬호의 손길은 계속되었다. 1919년의 거 족적 삼일만세운동 소식에 박차를 가해 서재필과 이승만이 1919년 4 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의 독 립운동의 요람지인 필라델피아의 소극장에서 개최한 한인대표자 대 회에 민찬호도 참석했다. 그 해 Hartson 교장 후임으로 한인기독 학원 교장에 취임하였는데 그 해 가을 학기에 남학생 77명과 여학 생 67명 등 144명이 등록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민단 실행령 을 준수하여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가 해체되고 대신에 하와 이대한인교민단이 설립되던 1922 년 민찬호는 교민단 총단장에 선 출되었다.

복음사역 외 문화명령에도 관여, 조선독립과 학교 교육에 앞장 1905년 하와이한인감리교회 파송후 36개 처 교회 전도소 섬겨

학장인 존 W. 와드맨 부인을 도왔 다. 공진회는 민찬호의 산물이었 다. 1906년 민찬호는 그 회장이 되 어 이내수, 임준호, 임정수 등과 함 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인재양성 을 전개했다. 1905년 을사늑약 이 후 하와이의 24개 단체 대표자 30 명이 1907년 호놀룰루에 회집하여 '한인합성협회'를 조직할 때 공진 회 대표로 임정수와 이내수 등과 함께 민찬호도 참석했다.

본 한인 합성협회는 조국 국권 광복, 재류 동포 안녕 보장 및 교육 장려 등을 목적하였다.

1908년에 작성한 '하와이 한인 합성협회'와 '미주 한인공립협회' 와의 합동을 제기한 '합동발기문' 의 하와이 한인합성협회 대표 중 한 사람으로 민찬호가 이름을 올

교의 맥크레이 신학교에 입학하였 다. 그는 5년간 공부한 후 1916년 에 본교를 졸업하였다. 졸업한 그 해에 남가주 대학교대학원에 입학 하여 1917년에 교육학으로 문학석 사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논문 제 목은 "현대한국 교육사에 대한 한 연구"였다. 이 기간 그는 '영한 실

> 천 회화 핸드북'을 저 술했는가 하면, 영문 책 '성경 해설집'을 조 선어로 번역하기도 했

유학 기간 민찬호는 LA 한인감리교회에 부임하여 복음 사역을 이어갔다. 1896년 미 국 북감리교 의료선교 사로 내한했던 해리 C. 셔만 선교사의 부인 프로렌스 셔만이 1904 년 3월 미국 남감리교 회 선교부의 지원을 받

교회 간의 예양 협정에 따라 LA 지역은 미국북장로교 선교지역이 었기 때문에 교단 간 명분이 성립 되었다. 민찬호는 LA뿐만 아니라 LA 인근에 흩어진 한인 기도처를 순회하며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을 위로했다.

민찬호는 한인 동포를 위한 활 동도 멈추지 않았다. 민족 계몽 운 동을 목적하여 흥사단이 조직되던 1913년 민찬호는 8도 대표 창립위 원 중 황해도 대표로 관여하였고 그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대한인 국민회는 1918년 파리강화회의 한 인 대표로 이승만과 정한경과 함 께 민찬호도 파견하였으나 미국의 비자발급 거부로 참석이 좌절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데는 실패했 다.

민찬호는 1919년 이승만의 초청 으로 하와이한인기독교회 목회자 로 부임한다. 본 교회는 1918년에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와이감리교 회에서 분열된 신립교회가 그 시 작인데 한인중심의 독립교회였다. 부임한 지 3년 만에 민찬호는 예배 당을 건축하고 각 지방에 15개 처 의 기도처를 세웠다. 그는 1929년 에 은퇴하기까지 10년간 교회를 섬겼다. 현재의 하와이한인기독교 회 건물은 1938년에 조국을 기억 하자며 서울 광화문을 본떠 세운 건물이다.



중앙부 이

사원 중

민찬호 목사

한 사람으로 한인 친목과 임시정 부 후원과 독립운동에 힘썼다. 민 찬호는 1923년 포화학생 고국 방 문단을 꾸려 서울과 대구를 방문 하고 하와이 동포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였다. 1938년 차신호, 최선 주, 최창덕, 서재근, 권도인등과 함 께 중한민중동맹단을 발기한 민찬 호는 회원 40명과 함께 1942년까 지 한길수의 외교활동과 순행간연 을 지원하였다.

1913년 민찬호는 1888년경에 조선에서 태어나 1903년에 하와이 로 이주한 몰리 홍과 결혼하여 폴. 토마스, 필립, 제시, 앤드류 등 4남 1녀를 두었다. 1929년 하와이한인 기독교회를 은퇴한 민찬호는 1940 년에 하와이 호놀룰루의 호텔 매 니저로 활동하였으며, 1954년 향 년 77세로 소천했다.



LA 한인장로교회(1910년대)

그게 그런 뜻이었어?-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35)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시는가?

포도를 많이 열리게 하려면 어떻 게 해야 하는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 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 하게 하시느니라"(요15:2).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 슨 뜻인가? 흙이나 먼지를 잘 씻어

주어야 한다는 말일까? 여기에 사 용된 단어는 'kathairei'이다. "깨끗 하게 하다, 손질하다"라는 뜻이다. 나뭇가지들이 많이 있다. 그것을 손질하려면 필요 없는 가지들을 잘 라 주어야 한다.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깨끗 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은 포도나 무의 경우에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과실나무는 가지치기를 잘 해주 어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님에게 붙어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

지 아니하는 가지는"(요15:2). 기독 교인이라고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들 도 얼마든지 있다.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일 수도 있다.

예수님 안에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려서 버려질까? "무릇 내 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 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 해 버리시고"(요15:2).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잘린 후 밖에 버려져 불살라지게 된다. 최후심판 때에 염소들과 악 하고 게으른 종,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초청받고도 오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 은 밖에 버려져 슬피 울며 이를 갈 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단지 열매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 잘라서 불살라버리실까? 지옥에 던져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 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요15:2).

여기에서 '제거해버리다'는 단어 는 헬라어로 'eiro'로, '들어 올린다' 라는 뜻이다. 또한 이 단어는 '제거 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진다. 예를 들어 돌을 들어 올린다는 것 은 돌을 제거한다는 뜻이다. 나사 로의 무덤 문을 열어 놓으라고 하 셨을 때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이다. 거의 모든 성경이 요한 복음 15장 2절을 번역함에 있어서

이 eiro를 제거하다는 의미로 옮겼 다. 그러나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 인 "들어 올리다"라는 뜻으로 번역 해보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 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것을 들어 올리시고."

우선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열 매가 없을 때 포도나무 가지를 들 어 올려주는가? 그렇다. 가지가 땅 에 쳐져 있으면 흙이 묻거나, 흙이 나 오물이 묻어서 떨어지지 않게 된다. 그리고 햇빛을 충부니 공급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럴 때 농부는 그 가지를 들어서 흙을 씻어내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시들시들하던 가지가 생기

를 얻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9면으로 계속〉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4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벽기도회:오전 6:00(월 토)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오후 7:00

벧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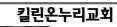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융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BOX 8358 Lacey, WA 985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반면에만: 오후 8:00

Tel.(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갈보리장로교회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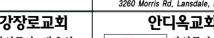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무에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Fax.(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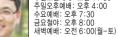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에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담임목사: 조진모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보스턴장로교회

Tel.(508)425-4579, Fax.(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샬롯장로교회

Tel.(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담임목사: 한세영

www.l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쿠 1:15

새벽기도: 오전 6:00(토)

SE Tel.(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com

www,kucp,org

8





리더십 코멘터리 (17)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특

낍

यामारा धामार मेर्ने हेर्ने मेराना भाषा

이청득심

경청이란 한마디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잘 집중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대인 의 삶속에서 경청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 고 있다. 미래학자인 톰 피터스(Tom Peters) 는 "20세기가 말하는 자의 시대였다면, 21세 기는 경청(傾聽)하는 리더의 시대가 될 것이 다." 라고 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화 습관엔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그 것은 경청하는 습관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듣 는 것이 어렵다. 인간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대략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침묵을 배우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데는 60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걸린다. 60세를 이순 (耳順)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생에 경륜이 쌓 이고 사려와 판단이 성숙하여 남의 말을 순하 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만 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어렵다. 어 렵고 힘든 만큼 경청의 힘은 실로 엄청난 파워 를 지닌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경청의 중요 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리더가 되려면 반 드시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리더의 힘은 경청으로부터 온다.

도대체 경청이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토록 경청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 것일까? 경청은 두 가지 의 미를 가진다. 첫 번째는 타인의 이야기를 존중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한 다. 즉 경청이란,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이 야기를 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을 존중하는 마 음을 갖고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듣는다는 것, 그것은 포커스를 맞추 어 제대로 집중해서 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 고기가 촉수로 세상을 세세하게 느끼고 인식 하듯이 상대의 제스처, 눈빛, 태도, 손동작, 움 직임 등을 하나하나 면밀히 파악하면서 들어 야 한다. 그래야만 말하는 상대의 생각과 마음 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읽어낼 수가 있다. 사람 은 무언가 뜻을 이루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 직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상대의 말 을 잘 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기 말을 진정으로 잘 들어 주고 자기를 존중해주며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 야 한다.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는 말이 있다 "상대 를 존중하고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라는 뜻이다. 사람 의 마음을 얻고 뭔가 하고 싶다는 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힘, 그것은 바로 경청하는 리더가 가 져야 할 태도임을 잊지 말자.

첫째,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경청하는 습관이다. 자신

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습관 하나가 상호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 세상에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 은 아무도 없다.

둘째, 경청은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 누군가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느낌, 존중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 또 경청은 성공을 부르는 대화 습관이다. 영업의 달인으로 소문난 사람들, 영업의 신이 라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비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얼굴에는 환한 미 소를 짓고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 업 비결인 것이다.

셋째, 설득은 경청에서부터 시작된다. 상대 방을 설득하고 싶은가? 내가 의도하는 대로 그들을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경청이 그 해답이다. 리더는 마땅히 경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청하는 습관을 몸에 지녀야 한다. 제대로 잘 들으면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 나의 이미지

자기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듣 거나 때로는 어떻게 변명할 것인지, 때로는 어 떻게 공격할 것인지, 때로는 어떻게 잘 보일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생각하며 듣는다.

성경은 이렇게 경청하지 못하는 우리의 태 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우선 구약을 보 면 잠언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 을 당하느니라."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다. 계 속해서 신약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먼저 듣는 일 에 주력하고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라는 말 씀이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들에게 들을 귀를 가지라고 강력하게 말씀하 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 9절을 보 면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귀 있 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 라." 이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귀를 가져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이다. 잃어버 린 들을 귀를 회복하라는 강력한 명령인 것이

우리가 들을 귀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 할까? 한 마디로 말하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 경청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귀 기 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인디언 토킹스틱

경청을 습관으로 발전시키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경청은 타인의 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 리더의 힘과 영향력은 경청에서...신뢰ㆍ기분전환ㆍ설득 효과

와 호감도는 상승할 것이며, 동시에 대화의 주 도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리더의 힘과 영향력은 경청에서 나 온다. 리더여, 말하는 것을 자제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 보자. 현대사회에선 경청을 잘하 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스마트 리더라 불 릴 수 있다. 결국, 경청할 여력이 없는 리더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여, 조직원(회사원, 성도)들이 신바람이 나서 신명 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가? 그렇 다면 조직원(회사원, 성도)들의 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어라. 듣는 것이 성공의 첫 번째 조 건이다.

들을 귀를 가지라

들을 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대화를 나누게 된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 중심 에 자기가 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들으 려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말하려고 한다. 그리 고 들을 때도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 지 못하고 대체로 다음의 특징을 보인다.

첫째, 선별해서 듣는다. 상대방의 이야기 가 운데 듣고 싶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는다. 둘째, 계산하며 듣는다. 상대방이 어 떤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손익을 계산하면서 내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내게 손해가 되는 지를 판단하면서 듣는다. 셋째, 할 말을 생각 하며 듣는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잘 듣는 실제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 '인디언 토킹스틱(Talking Stick)'이라는 것이 있다. 인디언들은 회의를 할 때 이 토킹스틱을 사용한다.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나무 지팡이 를 가지고 자기 의견을 말한다. 그 사람이 말 할 때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 지팡이를 들 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 든지 다 들어준다. 우리가 토킹스틱을 생각하 며 들을 필요가 있다. 누군가가 말할 때 토킹 스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잘 들어줄 필 요가 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진실된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 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 공감적 경청은 놀 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간다. 그리고 말하는 사 람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위로를 받게 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한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당신도 경청을 습관으로 발전시켜 성공적인 리더가 되길 소 원한다.

sondongwon@gmail.com

必是宣言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우리아이 행복지수 높이는 비결

15개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한국 어린이들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8.2점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네팔 의 어린이들보다 낮았다. 옷, 컴퓨터, 인터넷 등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물품들의 소유만으로 보면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풍요로운 나라인 데도 주관적 행복감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게 나온 것이다. 이 조 사를 진행한 연구진들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들의 경우 사회가 정 해놓은 기준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익숙하고 부모의 기대감이 너무 커서 자녀들의 행복감을 해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행복이란 심신의 욕구가 충 족되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 더라도 자신의 삶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성품이 빈약하면 행복할 수 없 는 법이다.

행복을 위한 성품 '기쁨'과 '긍정적인 태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려면 무엇보다 좋은 성품 곧 기쁨과 긍 정적인 태도의 성품을 통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힘을 키워줘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좋은나무성품학 교 정의)이다. 기쁨의 성품을 소유한 어린이들은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 이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할 확률이 훨씬 높다. 긍정심리하자 나새니얼 브 랜든(Nathaniel Branden)은 '자존감이 낮으면 어려움을 겪을 때 두려움 과 우울함에 압도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존감이 높으면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서 금방 행복감을 되찾는다'고 말한다. 자신의 존재 자체 를 소중하게 여기는 기쁨의 성품이 뒷받침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

또 긍정적인 태도의 성품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인데 미국의 긍정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긍정적인 정서 가 인지 능력을 확장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즉 기분이 좋아지면 뇌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의 폭이 더 확장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지시만 하기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키워주면 인지능력과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어 자신의 어려움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 세를 갖게된다. 이는 곧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다.

행복지수를 높이는 성품교육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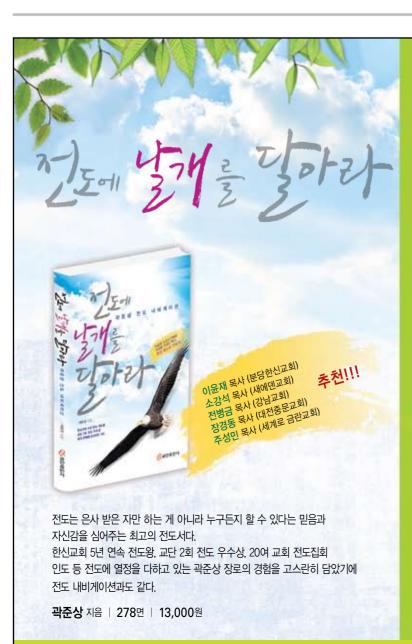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 다음 세 가지를 통해 기쁨과 긍정적인 태도의 성 품을 교육하고 있다.

첫째,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믿어주고 행복한 기억을 유산으로 물려주 려고 노력한다. 가족은 자녀들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믿어주고 행복한 기억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자녀에 대 한 합리적인 기대와 믿음을 보여주고 단점보다 장점을 찾아 칭찬함으로 써 자녀들이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고 응원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 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자녀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함으로서 자존감을 키워준다. 아이들 의 자존감을 길러주려면 사회가 정한 행복의 기준을 강요하기보다 자신 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르쳐야 하는데 '긍 정의 3단계'를 활용하면 좋다.

1)멈추기 - 부정의 사건이 닥칠 때 절망을 선택하기 전에 멈추는 훈련 이다. 2)생각해보기 - 자신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3)선택하기 - 그중 가장 긍정적인 생각, 감정, 행동을 구체적 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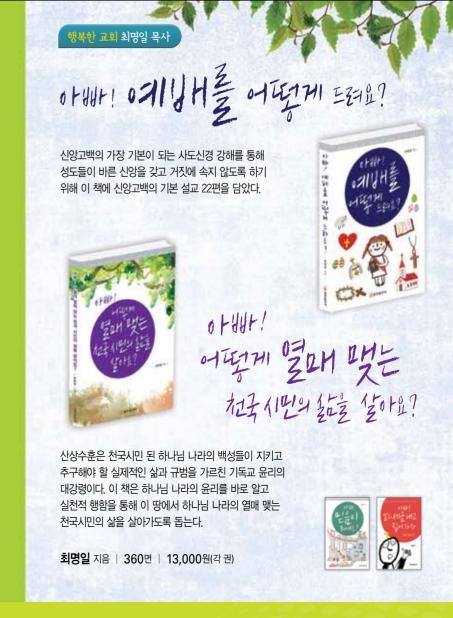
부모의 부정적인 태도는 자녀의 희망을 가로막는다. 아직도 많은 부모 들이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네가 뭘하겠니?, 넌 안돼' 하고 자녀를 비 난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부모가 이처럼 부정적으로 자녀를 대하면 낙인효과가 생겨서 부모의 말처럼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녀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내용이나 구성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는 청주금천교회 김진홍 목사의 10번째 설교집.

김진홍 지음 | 384면 | 13,000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제

제15차 KWMF 한인선교대회 1주일 앞으로

오는 6월 3일(금)부터 6일(월)까 지 4일간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 장 존 월레스 박사)에서 '일어나 빛 을 발하라(사60:1)'라는 주제와 '첫 사랑 회복과 성령이 함께하는 선교' 라는 부제로 열리는 KWMF 한인세 계선교사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 가왔다.

KWMF대회는 KWMC가 주최하 는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6월 6-10일)와 함께 1988년 시카고에 서 처음 개최된 이래 30년 만에 LA 로 옮겨 미 서부에서 개최되는 역 사적인 의미가 있다.

특별히 이번 대회는 그동안 KWMC의 우산아래에서 전반적인 행정을 준비하고 개최해왔던 것인 데, 이번에 행정적인 독립으로 진행 된다.

20일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 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인세계선 교사대회 대회장 KWMF 송충석 선 교사는 "한사람이 오는 것은 전 세 계가 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 며, "이곳 남가주 역시 선교지다. LA를 위해 기도하고, LA의 교회들 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바란다. 또한 선교사 들을 위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려



KWMF 관계자들(왼쪽부터 공동대회장 한도수 선교사, 대회장 송충석 선교사, 미주준비위원장 김경일 선교 사)이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홍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활짝 웃으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고 한다.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또 다른 나그네들이 이곳 에 와서 잠시 머물게 되는데, 머무 는 동안 관심과 사랑으로 환영했으 면 한다"며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대회는 특별히 6월 5일을 선교주일로 정하고 남가주 한인교 회들을 선교사들이 방문 선교보고 를 하게 된다. 주최 측은 남가주 한 인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의 재 헌신 과 미완성 복음, 즉 땅 끝까지 복음 전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완성에 목적을 두고 선교주일 행사 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선교사대회는 3번의 아침예배와 10번의 세미나, 그리고 3번의 부흥 사경회가 준비돼있다.

강사로는 유기성 목사(선한목자 교회),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 회),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김양 재 목사(우리들교회), 김동엽 목사(목민교회), 김문훈 목사(포도원교 회), 최형근 박사(서울신대 교수), 스캇 선키스트 박사(풀러신학대학 원장), 김병윤 선교사(필리핀), 고석 희 목사(KWMC사무총장), 한정국 선교사(KWMC 사무총장), 강윤식 원장(기쁨병원), 송충석 선교사 (KWMF 대표회장) 등이다.

세미나는 △선교와 리더십 △선 교와 성령 △선교와 O.T △세계선 교동향 △선교사의 건강관리 등을 다루게 되며 6일(월) 폐회예배 전 에 정기총회를 갖게 된다.

미꾸교계

또한 KWMC대회 4일째는 '선교 사의 날'로 정하고 모든 행사 또한 선교사 중심으로 운영한다. 점심 식 사 후 열리는 선교도전의 시간, 오 후 2시20분 선교전략 좌담회에 이 어 3시부터는 대회 참석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40개 지역(큰 단위 국 가와 종교권으로 분류) 선교포럼의 주제 강좌에 참석하게 된다.

그리고 오후 4시 30분 아주사대 학 광장에서는 20개 권역을 배당해 모든 선교사들이 각 지역 별로 모 이게 된다. 이때 일선 목회자와 평 신도들은 관심 있는 선교지역으로 찾아가 '선교사와의 만남'을 갖게

오후 8시 저녁 집회는 '선교헌신 의 밤'으로 어린이, 청소년, 영어권, MK 등 선교대회 참석자 전원이 참 석해 선교 콜링의 시간을 갖고 각 지역 선교사들을 비롯해 참석한 목 회자들이 당일 선교 헌신자들을 위 해 안수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마련된다.

KWMC는 대회기간 70여개 부스 를 통한 정보와 다양한 혜택을 얻 을 수 있다.

대회 문의나 등록은 www.kwmf. info 또는 (213)507-3875, (516)277-2081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에반겔리아(복음)대학 학위수여식에서 학위수여자와 교수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총 25명 졸업 에반겔리아(복음)대학교 2016년 학위수여식

에반겔리아(복음)대학교(총장 신 현국 박사) 2016년 학위수여식이 21일 오후 4시 본교강당에서 열렸

학생처장 한기원 박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신현국 박사가 환영 사, 정필흠 목사(전임총회장)가 기 도, 신정님 박사가 성경봉독, 글로

리장로교회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손창호 목사(전임총회장)는 '예수님만 바라보자'(히12:1-2)라 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졸업생을 격려했다.

학위수여식은 교무처장 이수영 박사의 사회로 시작, 신현국 총장 이 학위수여와 총장훈화를, 이용규 목사(동부장로교회)가 격려사를, 정재훈 박사가 축사를 했다. 또한 하늘꿈교회 중창팀이 축하 특송을

불렀다.

이어서 재학생 대표가 졸업생에 게, 졸업생 대표가 학교에, 그리고 학교가 졸업생에게 기념품을 증정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위수 여식은 이사장 신용규 목사의 축도

다음은 에반겔리아 대학교의 학 위수여자 명단이다.

△목회학박사: 고현철, 김신은, 손성수, 심석현 △목회학석사: 박 민수, 배의진, 서정일, 심창섭, 이옥 수 △문학석사: 김수현, 최승균 △ 성경문학사: 강영국, 부희선, 서영 국, 신명선, 오성재, 윤화숙, 이동 희, 이미영, 이준성, 전은희, 조원 근, 조이삭, 최식 △평신도신학원: 주사라.

F.I.T.(Free in the Truth) 순회 공연

〈박준호 기자〉

제6회 사모님 블레싱 나이트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음악회와 레크리에이션으로... 제6회 사모님 블레싱 나이트 성황

제6회 사모님 블레싱 나이트 행 사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 회(회장 민승기 목사) 주최로 세리 토스 팍 이스트에서 19일 오후 6시 에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형수 목사(신학담당 부회장)의 시작기도와 임성필 목사의 찬양인 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박용일 목 사(서기)가 기도했으며, 민승기 목 사가 '끈기라는 덕목'(벧전2:19)의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박용덕 목사(증경회장)가 축도했다.

식사시간과 소음악회로 진행된 2부 순서는 태드황 목사(총무)의 사회로 시작, OC첼리스트 앙상블(대표 주에스더), 노상철 목사(부서 기), 박지범 목사와 조수연 사모가 공연을 했다.

이어 3부 레크리에이션은 승에 녹 전도사와 신현철 목사(대외담당 부회장)가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민경엽 목사(이사 장)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 30회 국제합창대회 합창단모집 2017년 4월 이태리 베로나에서

Description Intercery Package Crientation Excessions

제 30회 국제 합창대회에 참 가할 합창단원 을 모집한다. 2017년 4월에 이태리 베로나 에서 열리는 대 회일정에 대한 설명회가 6월 12일(주) 오후 5시 미성신학 대학강당(818 S. Western Ave. Suite 400,

LA)에서 열린 다.

국제합창대회에 참가하는 합창 단은 UCLA 작곡과, 합창지휘를 전 공한 전현미 선생이 지휘자로 나서 게 된다. 전현미 선생은 국제합창 대회의 주최 측으로부터 대회참가 에 대한 편지를 받아 대회참가 준 비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50명의 찬양단을 구성해 한인으로 처음 '베들레헴 국제 크리스마스 찬양제'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전현미 지휘자는 오는 10월경 Verona International Choral Competition에 참가하는 세계에서 모인 지휘자들의 모임에 참가해 회의를 하고, 또한 밀라노 은혜교회에서 찬양대세미나를 하 고 돌아와 내년 4월에 있을 대회준 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제합창대회는 지정곡 한곡과 자유곡 세곡으로 Renaissance,



2017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이태리 베로나에서 열리는 제30회 국제합창대회에 참가할 단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INTERNATIONAL

VERONA

Romantic, 그리고 Contemporary music 으로 준비하게 된다. 총 2주 의 여행 동안 4박5일은 대회일정 으로 주최측에서 준비한 스케줄대 로 진행하며 대회에 참가한 합창단 은 주최측에서 준비한 이태리 현지 (local)에서의 연주와 이태리 합창 단과 함께 연주한다.

또한 대회 주최 측에서 베로나 시 관광과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나오는 줄리엣의 courtyard balcony와 베니스 투어 도 계획돼있다.

전현미 선생은 "남가주 지역에 유학온 학생들이나 성악전공을 하 신 분들이 이번 기회에 함께 참여 해 본인들의 경력범위를 넓이는 귀 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창단원 모집에 대한 문의는 전 현미지휘자 310-381-9835/ hchon@g.ucla.edu로 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기/도/칼/럼

기도에 굶주리게 하소서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푸른 하늘같은 마음, 행복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기도하고 싶 은 마음이다. 기도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심정이다. 기도하고 싶 어 만사를 제쳐놓고 무릎을 꿇는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진 다. 기도하기가 싫을 때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그때는 주님의 특별하신 인도함 이 있다.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길 때에는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즉각 순종해야 한다.

새벽에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뜨거워져 기도를 하는데 찬 송가 487장을 부르고 싶은 감동이 왔다. 그냥 부르다가 찬송가를 찾 아 불렀다. 가사를 생각할 때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쏟아 진다. "1.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2. 시험적 정 모든 괴롬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 세. 이런 진실하신 친국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뢸까. 3. 근심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 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영혼을 진 동시켰다. 그렇다. 찬송을 통해 새 힘을 주시고, 기도의 중요성을 깨 닫게 하시려고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이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 때 잠자지 말고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은 찾아오신다. 찬송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 성령의 기름부음심이 임한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굶주린 자의 심정으 로 기도하고 싶어 몸부림을 쳐야 한다.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무엇에 배고파하고 있는가. 기도에 굶주리게 하소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대상17:25).

bible66@gmail.com



SRTCS 6회 졸업식에서 학위수여자들과 학교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SRTCS 제6회 졸업식...LA캠퍼스 총 9명 졸업

개혁신학의 전통을 따르는 초교 파 신학교인 남부개혁신학대학및 대학원(SRTCS, President: Dr. Terry Curtis) 제 6회 졸업식이 휴 스턴 새생명침례교회(New Life Baptist Church)에서 21일 오후 3 시에 열려 총 9명이 졸업했다.

금번에 2014년 문을 연 LA 캠퍼 스(학장: 김회창 박사)에서 3명의 문화교류학 박사(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가 20일 논 문 디팬스와 교제를 가졌고, 4명(1

명 명예박사학위)이 박사학위를 취 득했다.

이번 6회 졸업식에서 박사학위 수여자는 이충애 목사, 정은순 장 로, 이인승 목사, 노예식 목사(명예 신학박사).

LA 캠퍼스는 학사, 석사, 박사 과 정(문화교류학, 선교학, 목회학 박 사)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 중에 있다.

▲상담전화: (213)219-0649 〈기사제공 SRTCS〉

〈7면에서 계속〉

그러나 계속 바닥에 떨어져 있으 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죽 게 되고 만다. 그래서 농부는 가지 들을 들어 올려준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열매를 맺 을 수 있도록 '들어 올리신다.' 열매 를 많이 맺는 가지만 더 열매를 맺 도록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열매를 맺도록 돌보시는 분이다. 포도나무가 그늘 에 가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들어 올려서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게 하 시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들은 가 지치기를 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하 신다. 하나님은 열매가 없다고 해 서 가차 없이 잘라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물론 죽은 가지는 잘라버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다 죽은 가지는 아니다. 잘 돌보아주 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기독 교인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

요한복음 15장 2-3절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 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 해 버리시고(eiro) 무릇 과실을 맺 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 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kathairei)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 로 이미 깨끗하였으니(katharos)"

"깨끗하게 하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온다. 'kathairei'는 "깨끗하게 하 다, 손질하다"라는 뜻이다. 가지치 기도 나무 손질에 속한다. 'katharos'는 용광로를 통과할 때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나오듯 이 그렇게 불로 깨끗하게 하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 했듯이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 주는 것은(eiro)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햇빛을 잘 흡 수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서 좋 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 이렇게 보면 이 구절에서 강조 하고 있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으 려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 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끗케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들어 올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 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 하여졌느니라."

가지인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 려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깨끗해야 한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 으실 것이다(요15:8).

jinhlee1004@yahoo.com

F.I.T. 창작뮤지컬 순회공연 'Faith'

뮤지컬 선교단

뮤지컬 선교단 F.I.T.(Free in The Truth 단장 이혜연) 가 작년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들' 순회공연 에 이어 올해도 'Faith'란 창 작선교뮤지컬로 여러 지역 에 순회공연을 하게 된다.

F.I.T.는 모든 자유로운 예 술의 형태로 복음을 표현하 고 증거 하는 뮤지컬선교단 으로, 2007년부터 대형교회 열린예배에서 위십댄스, 스 킷드라마, 뮤지컬 등을 창작 해 공연했고, 2010년부터 뮤지컬선교단으로 사역을 확장해 'Faith', '삶과 죽음사 이에서', '공원의 천사들', '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 한 사람들' 등의 창작 뮤지 컬을 순회공연하고 있다.

20여 년 동안 뮤지컬 문 화선교의 길을 걸어온 이혜 연 단장(풀러 선교문학석사), 한용 주 부단장 외 여러 달란트를 가진

믿음의 지체들이 섬기고 있다. 이번 순회공연 일정은 △5월 27 일 저녁 8시 마음이가난한사람들 의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 △6월 4일(토) 얼바인중앙교회(담임 이상 대 목사) △8일(수) 저녁 7시45분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한의준 목

사) △17일(금) 저녁 8시 선한청지

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 △22일(수) 저녁 7시30분 나성금란교회(담 임 정상용 목사).

기적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믿음 으로만 만날수 있는

6/22 (수) 7시30분 나성급판교회 (3153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공연은 무료이며 CD구매를 통해 후원을 받고 있다.

F.I.T.는 오는 9월 작품 'Faith' 공 연을 원하는 교회의 연락을 기다리 고 있다(선착순 4교회).

▲문의: (213)248-9772 〈기사제공: 뮤지컬 선교단 F.I.T〉

동부교계 게시판

'지성소 예배'

정기적인 지성소 화요 집회 준비를 위한 공개 예배인 '지성소 예배' 가 6월 14일(화) 오후 8시 뉴욕새힘교회(담임 박태규 목사)에서 열린 다. 특별게스트로 찬양사역자 이은수 목사, 제시유 음악감독, 이광선 집사가 출연한다.

▲문의: (646)258-4161

패밀리터치 무료 여름가족캠프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8월 20일(토)과 21일(일) 양일간에 걸쳐 HNA 팰리세이드 컨퍼런스 센터(Palisade, NY)에서 부모와 자녀 가 함께 가족 간의 대화기술,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여름가족캠프' 를 개최한다. 금년 캠프는 초등학교 자녀들과 부모님을 참석대상으로 하며 미연방정부 후원 프로그램으로 무료다. 한편 패밀리터치는 지난 11일 후원골프대회를 가진 바 있다.

▲문의: (201)241-4422



뉴욕장로연합회 제39차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뉴욕장로연합회 제39차 조찬기도회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로) 제39차 조찬기도회 가 지난 19일 오전 8시 동양제일교 회(담임 빈상석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손성대 장로는 인사말을 통 해 "지난 3일과 4일,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행복한 동행 을 위한 목양장로컨퍼런스를 잘 마 쳤다"며, "이제 8월에 '다민족선교 대회'를 앞두고 있다. 뉴욕에는 많 은 민족들이 있는데, 각기 고유의 전통의상을 입고 고유의 언어로 하 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민족 간에 화합과 소통의 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 장로는 "또한 앞으로 장로연 합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단체로 쓰임 받기 위해 기도해주시고, 함께 협력해주 시며 매월 드리는 기도회에도 꼭 참여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인사했다.

예배는 정권식 장로 인도로 박성 범 장로의 기도 후 빈상석 목사가 시편 84:5-8을 본문으로 "뉴욕의 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황규 복 장로가 "다민족선교대회와 장로 연합회를 위하여", 이보춘 장로가 " 조국과 미국의 신앙회복을 위하 여", 정덕상 장로가 마무리 통성기 도를 함께 드렸다.

이어서 김연창 장로가 헌금기도 를, 임형빈 장로가 헌금 특송을 했 으며, 빈상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 를 마쳤다.

이어 회장 손성대 장로의 인사말 이 있은 후 박용기 장로가 식사기 도를 하고 조찬을 나누며 교제시간 을 가졌다. 또 5월 생일을 맞은 회 원들을 위해 케잌을 자르며 축하하 는 시간도 가졌다.

뉴욕장로연합회가 연례 행사로 주최하는 '다민족선교대회'는 8월 28일(주) 오후 5시 뉴욕효신장로교 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변화, 성숙, 열정" 주제...강사 조영준 목사

미주웨슬리부흥전도단, 웨슬리 회심 287주년 기념대회

미주웨슬리부흥전도단(단장 김 영식 목사)이 주최한 웨슬리 회심 287주년 기념대회가 지난 22일 오 후 5시 뉴욕그레잇넥교회(담임 양 민석 목사)에서 열렸다.

"변화, 성숙, 열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 강사로 초청된 조영준 목 사(전 정동교회 담임)는 "웨슬리 신 앙의 회복을 위하여"(행4:12)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의인 △성화 △그리스도인 삶의 온전에 대한 교 리를 전했다.

조영준 목사는 "웨슬리 목사가 지 금 미국과 한국에 오셔서 감리교회 를 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라며 3가지로 설명했다. 다음은 설 교요약.

첫째, 제도화로 경직된 감리교회 를 탄식하실 것이다. 제도화되면서 신앙의 열정은 식고 정치화와 부패 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한국감리교 회는 지난 수년 동안 감독제를 놓고 싸웠으며 감독제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의 감독선거도



웨슬리 회심 287주년 기념대회에서 강사 조영준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너무 정치화됐다. 감리교내의 여러 정치집단들-히스패닉, 북미원주민 아시안, 여성목회자, 동성연애자들 의 지지를 받아야 하니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 고 감독들은 믿음으로 리드하는 것 이 아니라 타협만 하고 있다.

둘째, 우리의 상대적인 신앙을 한 탄하실 것이다. 상대주의는 하나님 이 주신 계시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 는 인본주의에 빠지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만큼 알 지 더 알 수는 없다. 메시지 없는 교 회에 왜 사람들이 오며, 확신 없는

우리는 각기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

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일군'

이라며, "말씀에 대한 지적 훈련과

영적 훈련, 그리고 실제 사역훈련

을 받아야 온전한 일군이 된다"고

강조하고 "아무리 능력자라도 하나

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또 조 목사는 "교회가 사탄 마귀

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마귀의 유

혹에서 벗어나려면 베드로후서 1

장 5-10절 말씀처럼 믿음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알기위해 게으르지

말고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일군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다

학위수여식은 최원정 교수가 학

사보고를, 유상열 학장이 학위수여

및 훈시를, 최호익 총무처장이 축

사했으며, 김영환 집사가 축가를

부른 후 졸업생 대표 설문덕 집사

이어 졸업생이 학교에, 재학생이

뉴욕리폼드신학대학(원)은 예장

24명을 배출했으며 2012년 아시아

지역 신학교와 결연을 맺고 학사

〈유원정 기자〉

석사, 총 12명을 배출했다.

하라"고 말했다.

가 답사했다.

것이 사역"이라고 설명했다.

설교에 왜 귀를 기울이겠는가.

셋째, 윤리의 위기를 말하실 것이 다. 신학의 상대주의는 자연히 윤리 적 상대주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관용주의가 미국을 휩쓸고 있으며, 한국에도 많이 퍼지고 있 다. 웨슬리 목사는 교회는 성경, 전 통, 이성, 체험 등 네 가지를 기준으 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감 리교회는 지금 혼돈된 세상윤리를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다. 교회가 세 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윤리가 교회윤리를 변화시키고 있 는 것이다. 감리교회가 다시 한 번 살아나려면 웨슬리 목사가 말씀한 의인의 새로움을 서로 나누고, 성화 의 체험으로 서로 격려하며, 그리스 도인의 온전함을 행하여 함께 나아 가는 신앙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말씀선포 후에는 3가지 기도제목 을 놓고 통성기도로 이어갔다.

△감리교단의 웨슬리 영성의 회 복을 위하여/김종일 목사(뉴욕성서 교회) △개교회의 건강한 부흥을 위해/김영훈 목사(그리스도한인연 합감리교회) △개인의 전인적 치유 와 회복을 위해/장재웅 목사(롱아 일랜드연합감리교회).

예배는 정광원 목사(스태튼아일 랜드한인교회) 인도로, 찬양과 경배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 찬양팀, 몸찬양 섬기며춤추는사람들, 기도 이종범 목사(뉴욕만백성교회), 특별 찬양 웨슬리부흥전도단 연합성가 대, 설교 조용준 목사, 합심기도, 단 장인사 김영식 목사, 봉헌찬양 CBSN 합창단, 봉헌기도 김남석 목 사(뉴드림교회), 축도 양민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제 2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회로!"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제 2차 준비기도회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제 2 차 준비기도회가 지난 19일 뉴욕효 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의 최대 연례행사인 할렐루야 2016년 대회는 총 5회의 준비기도회를 갖

준비위원장 이만호 목사는 "대회 인원 동원과 후원금 지원을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다"며, "그러 나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해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 고 임원들과 준비위원들의 적극적 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만호 목사는 오찬 후 각 준비 위원들에게 지역별로 구체적인 준 비사항을 전달했다.

기도회는 이준성 목사 인도로 기 도 전희수 목사, 설교 문석호 목사, 특별통성기도 임병남 목사(미국과 조국을 위하여) 김재권 목사(뉴욕 동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하 여) 양민석 목사((강사 원팔연 목사 와 Wu Alan 전도사를 위하여, 교 회와 성도들의 참가, 날씨, 안전사 고, 대회후원을 위하여), 광고 박진 하 목사, 축도 신현택 목사의 순서 로 진행됐다.

뉴욕겟세마네교회

Tel. (718)358-6225, Fax.(718)762-4693 2408 5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hsemane.org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Tel(718)461-7835, CP.(718)938-1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퀸즈한인교회

Tel.(718)672-1150 Fax.(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y.org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문석호 목사는 "우리의 진정한 기쁨"(눅15:8-1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 시대의 관심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자유경쟁 구조 속 에서 성공과 성취, 만족 등에 있지 만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자유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낳고 있다"며, 주님의 관심은 홈리스나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에게 있다. 한 영혼 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할렐루야대회도 믿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을 반기는 대회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교협은 에콰도르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모은 성금 전달을 위해 이날 밤 현지로 출발했다.

회장 이종명 목사는 부회장 김홍 석 목사와 선교위원장 문석호 목 사, 총무 박진하 목사 일행이 성금 1만2천 달러를 재난지역에 직접 전 달하러 간다고 밝혔다.

할렐루야 대회 3차 준비기도회 는 임실행위원회 모임과 같이 6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수 정성결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서 〈유원정 기자〉 열린다.

뉴욕목양장로교회

Tel.(718)361-9199, Fax.(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akyang.org

뉴욕초대교회

Tel.(347)502–2571, Fax.(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cdchurch.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철야: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 예배: 오전 9: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EM영어 예배: 오현 1:30 화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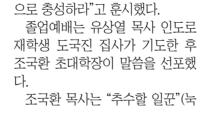
1

뉴욕리폼드신학대학(원) 제 6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뉴욕리폼드신학대학(원)(학장 유 상열 박사) 제 6회 졸업예배 및 학 위수여식이 지난 22일 저녁 6시 본 교에서 개최됐다. 이날 선교학 석 사 1명, 기독교교육학 학사 1명이

졸업했다.

유상열 학장은 "우리 모두는 복 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대적 사조에 편 승하지 않는 바른 진리에 입각한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며, '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계획 과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 심, 그리고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생명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를 증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오늘 졸업생들은 이 일에 부름 받았으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과 성실 과 거룩함으로 한평생 복음의 일꾼





뉴욕리폼드신학대학(원) 제 6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졸업생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합동총신측) 교단신학교로, 2004 년 뉴욕 주정부 교육국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신학 교육기관으로 2016년도까지 학사 석사 총 20명 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또 2007년 도미니카공화국에 분교를 설립 총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45 금요기도: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5:30

Tel.(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 FKCB.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청경공부: 오후 1:30 유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

동부(NY,NJ)교회

Tel.(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ahoo.com

에벤에셀선교교회



Tel.(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재덕기도: 오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Tel.(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사벽기도회: 오전 6: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뉴욕새생명장로교회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 교: 오전 11:00 수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급, 오전 6:3 금요중보기도회: 매울이 사용 7:7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www.pcov.org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하와이 행복한교회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에대: 오후 1:0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구글시국에네 시국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주일학교: 주일 12:00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및 북미 지역

Tel (416)490-9060

담임목사: 정관일

토론토 가든교회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l 96822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Tel.(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Tel(54)114-631-1788 AV. CÁ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담임목사: 최광언

하와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Tel. (595)21-574-985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담임목사: 이남수

"교협 신뢰회복에 힘쓰겠다"

제46대 남가주교협 회장 취임감사예배

제46대 남가주교협 강신권 회장 취임감사예배가 22일 오후 4시 세 계성경장로교회(담임 강신권 목사) 에서 열렸다.

신임 강신권 회장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남가주의 1,580개 교회와 교단 그리고 500여개의 선교단체 및 기관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 혜와 축복을 기원한다"며, "교협의 신뢰회복에 힘쓰겠다. 교단과 교회 와 수많은 기관이 합력해 선을 이루 기 위해서는 신뢰회복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투명성과 그에 따른 제도



제46대 남가주교협 회장 취임감사예배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둘째, 교협 의 화해실현을 이루어나가겠다. 교 계의 현실은 너무나 많은 분열과 상

아노), 기지혜(바이올린), 박지은

바이올린), 김수민(피아노), 소프라

노 김현지 등 이스트만 음대출신의

자매들이 출연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4중주를 비롯 피아노

와 바이올린 협주, 첼로와 피아노

협주, 피아노 독주, 그리고 오페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후원음악

회에 참여한 김현지 자매(이스트만

커뮤니티스쿨 강사)는 "작년에 이

어 두 번째로 같은 무대에 서게 됐

다.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쓰

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찬

양의 장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한 것 감사하다"고 소감을 빍

혔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LA사무실 오픈예배

곡과 찬양을 들려주었다.

CABC 후원음악회가 성황리에 열린가운데 공연에 참가한 뉴욕 이스트만

뉴욕 이스트만 음대출신 연주자들 공연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 후원음악회 성황

음대 출신 음악가들과 CABC 스텝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오는 6월 9일(목)부터 11일(토)

까지 말리부에 위치한 패퍼다인대

학교(총장 앤드류 밴튼 박사)에서

열리는 CABC(CAlifornia Bible

Conference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

퍼런스) 후원음악회가 20일부터

이번 음악회는 20일 미주서부장

로교회(담임 김선익 목사), 21일 생

명찬교회(담임 김동일 목사), 22일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에

이번 음악회는 뉴욕 바이블 컨퍼

런스(NYBC)에서 헌신한 뉴욕 이

스트만 음대 출신 연주자들이

CABC의 선포를 위해 남가주를 방

미주서부장로교회에서 열린 음

악회는 엘빈 신(바이올린), 박지은(

비올라), 신지인(첼로), 이선영(피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종회장

이우호 목사) LA사무실 오픈예배

가 19일 오전 11시 본 재단 사무실

(1458 S. San Pedro St, LA #244)

이성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

이어 열린 2부 순서는 사회자가

내외귀빈 소개를 했으며, 조웅규

배는 백운학 장로가 기도했으며 한

기형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22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 각각 열렸다.

문해 이루어졌다.

에서 열렸다.

처로 얼룩져있다. 흩어진 모든 기관 및 단체들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형성에 힘쓰겠다. 셋 째, 교협의 발전연계를 이루겠다. 작게는 남가주 넓게는 미 전역과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인교 회와 타인종까지도 점진적으로 연 계하는 네트워크를 구현해 관계를 돈독하게 하겠다. 더 나아가 미 주

류 사회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토대를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부오식

김재율 수석부회장의 사회와 세 계성경장로교회 찬양팀의 찬양인 도로 시작된 예배는 정우성 목사(부회장)가 기도했으며 김관진 목사 (부회장)가 성경봉독을, WBPS 중 창단이 찬양했다.

이어 한기형 감독(교협 증경회 장)이 '예수님의 몸을 세우자'(엡 4:11-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 며 이은수 목사가 헌금송을 불렀다.

이어 한기형 목사가 신임회장에 게 교협기를 이양했으며 강신권 신 임회장이 취임인사를 했다.

이날 엄규서 목사(남가주목사회 장), 민승기 목사(OC교협회장), 정 시우 목사(교협 명예회장)가 축사 했으며, 에릭가세티 LA시장의 축사 는 박세헌 목사가 대독했다.

또 줄리박 전도사가 색소폰 특주 를, 브라질 마르코 목사 외 7명이 축송을 했다.

이어 정해진 목사가 강신권 목사 에게 기념축하패를 전달했으며, 정 해진 목사의 축도로 이날 취임감사 예배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데이빗송 싱어즈 제1회 콘서트가 임마누엘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지 휘자 송규식 목사의 지휘에 맞춰 합창단과 관객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

'나의 백성 나의 찬송' 데이빗송 싱어즈 제 1회 콘서트 성황

데이빗송 싱어즈(지휘 송규식 목 사) 제 1회 콘서트가 송규식 목사 가 대표로 있는 홀리보이스 미션 주최로 22일 저녁 7시30분 임마누 엘장로교회에서 성황리에 열었다.

송요셉 목사(세계복음선교교회 담임)의 기도로 시작된 콘서트는 'A cappella Anehems'를 무반주로 불렀으며 'Horn Mass'를 불렀다.

'나의 백성 나의 찬송'이라는 주 제로 이어진 순서는 △성전에 들어 가며(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전 뜰/번제단에서(어린양의 노래, 피 의노래) △성소에서(말씀의 떡상/ 기도의 향단/금촛대 사이로 운행

하시는 성령님) △지성소에서(하나 님의 임재와 영광) △삶속에서(코 이노니아/삶의 찬양) 등의 섹션으 로 나눠 불렀다.

또한 소프라노 여선주, 앨토 김

승희, 조지영, 테너 오위영 목사, 바 리톤 방상근, 최승재, 이사효 등이 곡 중 솔로로 나서 완성도 높은 무 대를 선보였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관객들이 송

의 열매'를 합창단과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콘서트는 이상남 목사(등대

규식 목사의 지휘에 맞추어 '사랑

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LA사무실 오픈예배가 19일 오전에 열렸다

서부교계 게시판

미주 예심 전도대학 제14기 수강생 모집

예심전도대학에서 1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초 메시지와 천국 네비 게이션을 중심으로 일석이조 전도 법, 순간포착 전도 법, 철판 전도 법 등 환상적인 전도 법들을 강의하는 미주예심전도대학은 2016년 6월 7일(화) 개강하며 총 13주에 걸쳐 진행된다. 장소는 남가주빛내리교회(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문의: (714)401-9874

한국의 34번째 민족대표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LA특별전시회 및 기념행사

1919년 3.1만세운동 현장 등을 사진으로 담아 전세계에 알려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써 34번째 민족대표로 불리는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 LA특별전시회가 △6월1일부터 7일까지 우정의종각, △6월4일부 터 12일까지 윤페이스, △6일부터 10일 KWMC세계선교대회가 열리는 APU에서 열린다. 한편 기념행사는 △6월3일(금) 오후 8시 남가주주님 의교회(한의준 목사), △4일(토) 오전 5시20분부터 6시20분 새생명비전 교회(강준민 목사), △5일(주일) 오후 2시 토랜스조은교회(김바울 목사), 7일(화) APU(존월레스 박사)에서 갖는다.

▲문의: 82-2-766-2019

제2회 한부모가정축제

제2회 한부모 가정축제가 6월4일(토) 오후5시 LA비전교회(담임 김대 준 목사 520 S. Lafayette Park Pl, #200, LA, CA)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유호정 박사(풀러신학교)이며 등록은 무료. 저녁식사 제공.

▲문의: (949)885-6787, (213)386-9191



디스 어빌리티 오케스트라 관계자들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 단원모집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발달장애인과 음악적 재능 기부를 원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 성된 비영리단체인 '디스어빌리티 (This Ability)' 오케스트라(디렉터

재 첼리스트 최경은 교수(엘카미노 칼리지), 디렉터이자 바이올리니스 트 김윤정 선생(음악치료 전문가), 첼리스트 레이너 크로셋 씨(USC대

겨 그들이 더 행복하게 최선의 노 력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한다"며, "발달 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 통할 수 있도록, 또 세상이 음악을 통해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한다. 더 나아가 그들이 당당한 사

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 며 연령 제한도 없다.

김윤정 디렉터는 "음악치료를 공 부하고 실습하면서 다양한 음악적 치료를 통해 행동, 언어, 신체적 능 력이 개선되고 마음이 치유되는 것 을 체험했다"며, "그들이 음악을 통 해 기쁘고 값진 삶을 살기를 바란 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나성 영락교회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있 는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는 앞 으로 주 2회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오케스트라는 무료 그룹 레슨 및 리허설, 여름캠프, 가을정기연주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있다.

▲문의: (740)818-1781, primaxfondation@gmail.com

의원이 축사를, 이우호 총회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그리고 박종술

서부(CA)교회안내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 오후 7:30 금요예배 : 오후 8:00 새벽예배 : 오전 5:30 (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동문교회

Tel.(213)483-6625, Fax.(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90057 www.egkpc.org

세계소망교회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EM 청년예배: 오전 10:30 주 일 학 교: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2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sca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급)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 (정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청년) 성인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어예배 2후 1:00

일어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주 1:30(청년) 주일 확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Fax(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3부 순서는 모국 글로벌선진학교 학생방문단 모집건,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기금에 관한 건, 쿠바 방문 에 관한 건,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한국참전용사 초청 한국전 메모리 얼 서비스 행사 등에 대한 안건을 나눴다.

복사가 죽가들 무든 뉘 재난을 위

이우호 총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한 합심기도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박준호 기자〉

발달장애인과 음악재능기부 자원봉사자로 구성 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디스어벨리티 오케스트라는 장

김윤정)가 단원을 모집한다.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는 현

학원)가 이끌고 있다. 최경은 교수는 "장애는 하나님께 서 주신 소명이며 축복이라 생각한 다. 우리는 그 축복을 더욱 귀히 여

회인으로 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

다양한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대흥장로교회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www,gcj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주일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담임목사 : 신원규 주입1부예배: 오전 7:30 주입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입3부예배: 오전11:45 독일하교: 오전 11:45 목요기도화: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좋은마을교회

www.socalsamsungchurch.org Tel.(714)646-9259 Fax.(714)646-9264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나성영락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4: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213)245-4090 Fax.(213)365-1670 927 S. Bonnie Brae St. L.A., CA 9000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www.cornerstonet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나성제일교회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얼바인침례교회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토렌스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담임목사 : 김바울

주입부예배: 오전 8:00 주입/부예배: 오전 10:00(쟁, 8) 주입/부예배: 오전 11:30 주입/부예배: 오존 2:00(FM) 주입/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선 6:00(도)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담임목사: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미주평안교회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독성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www.mpcla.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윌셔크리스천교회



내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젊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탈동성애자 인권부터 보호하라" 제2회 '탈동성애 인권회복의날' 행사 개최

홀리라이프, 선민네트워크, 대한 민국미래연합, 탈동성애가족모임 등 탈동성애인권단체로 구성된 '탈 동성애인권포럼'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제2 회 탈동성애 인권회복의 날'행사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동성애자들에 게 대한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로부 터의 탈출입니다'라는 제목의 설명 을 발표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항의 방 문해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제지로 무산됐다. 미 대사관 측은 이날 경찰을 통해 "모든 서류 는 우편으로 보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선민네트워크 대표 김규호 목사 는 취지설명에서 "인권에는 차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 들의 인권은 소중하고 탈동성애자 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 을 친 동성애자들이 하고 있다. 자 신들의 인권이 소중하게 생각한다 면 타인 인권도 존중하는 것이 옳 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 동성 애자들은 탈동성애를 자신들을 혐 오하는 세력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며 지난해 동성애 퀴어축제에 참석 한 미국 리퍼트 대사를 비롯한 13 개국의 대사들은 동성애자들에게 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탈동성애 자들을 대해야 한다. 오늘 미국 리 퍼트 대사면담을 요청한다. 리퍼트 대사가 진정 소수자인권을 소중하 게 여긴다면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 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을 만나야 한 다. 동성애자 부모를 만났으니 이제 탈동성애자 부모를 만나야 한다"고 밝혔다.

홀리라이프 대표 이요나 목사는 발언에서 "동성애자로 40년 살다 탈동성애한 사람으로서는 세상에 서 가장 끔찍한 말은 동성애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것을 말하지 않고 동성애자들을 향 해 평생 동성애자로 살라고 하는 말"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지난해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가졌던 탈동성애자들 의 정당한 세미나를 혐오행사로 매 도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을 비롯한 친동성애 단체들의 만행 에 대해 분노했었는데 이번에는 미 국 리퍼트 대사가 동성애자들의 부 모들을 만나 동성애탈출을 포기하 고 평생 동성애자로 살겠다는 것을 지지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며 "그래서 저희는 오늘 리 퍼트 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탈 동성애자 부모들을 만나줄 것과 탈 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설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감, 존 웨슬리 회심 278주년 행사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사회평 신도국(위원장 안승철 감독)은 감 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회심 278 주년을 기념해 지난 13일 서울 종 로구 세종대로 감리회 본부에서 '생

명나눔 특별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올 사순절 기간

(새생명을나누는사람들(이사장 임 석구 목사)이 진행한 장기기증운동 과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비 후 원에 참여한 고양 아름다운교회(조 계성 목사), 인천 일신중앙교회(양 계승 목사), 홍성중부교회(김유천 목사) 등 18개 교회에 감사장이 수 여됐다.

임석구 이사장은 "장기기증으로 이웃 사랑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전했다. 기감은 지난해 아펜젤러·스크랜턴 선교 130주년 기념사업으로 각막이식수 술비 후원 모금 활동을 펼쳐 시각 장애인 6명의 각막이식 수술을 지 원했다.

"한충렬 목사 피살 의혹 해소하라" 기독교계, 중국 정부에 촉구

40-50대 목회자 중심의 기독단 체 '선민네트워크'(상임대표 김규호 목사)와 탈북동포회(회장 한금복) 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2길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제 336차 탈북난민북송중지 수요집회'를 개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중국정부 는 한충렬 목사 피살사건을 수사결 과를 공식발표해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탈북자 김모 목사 실종사건도 엄중 수사하며 북한공 작원들에 의한 북한인권운동가 테 러에 대해 보호대책을 즉각 마련하 라"고 촉구했다.

또 "중국정부는 탈북난민 강제북 송 중단하고 강제송환을 금지한 유 엔난민협약을 준수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북한당국에 대해 "북한인 권운동가에 대한 납치, 살해 등 사 악한 테러행위를 중단하고 북한 억 류자들을 즉각 송환하라"고 주문했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도 "납치 추정되는 탈북자 목사의 소재파악 에 최선을 다하고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 최춘길 씨, 임현수 목사 등 북한억류자 송환을 적극 추진하라" 고 촉구했다.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6월 11일 준비위 기자회견 '생명 가정 효 페스티벌' 등 개최

서울광장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 민대회 준비위원회는 23일 서울 중 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퀴어문화축제에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다음 달 11일 서울 대 한문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 다음 달 열리는 국민대회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뿐만 아니라 무신론자 들도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될 것"이라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과 정치권은 이 행사가 온 국민의 동성애 반대의사가 표출되는 자리 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박 시장이 동성애자들의 서울광장 사 용신청서를 수리한 것은 서울시민 을 존중하는 태도가 결코 아니었 다"라면서 "에이즈 및 변실금 등 심 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동성애 를 옹호·조장하는 문화를 만들어선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 임 공동대표도 "동성애는 자연의 섭리, 신의 섭리를 거스르고 윤리・ 도덕 가치관의 파괴는 물론 가정과 국가의 파괴현상도 가져 온다"고 비판했다.

김수읍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부 회장은 "동성애자를 진정으로 사랑 하는 길은 그들을 치유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 다. 준비위는 국민대회 당일 오후 2 시부터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를 갖 고 오후 4시부턴 '생명 가정 효 페 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구 톡 신 청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유럽..... \$190

	캐 니다 \$11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남 미 \$190 아프리카 \$190			
신 청 유 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목 사 🗌 평신도 🗌			
배 달 주 소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격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배 달 주 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net

미국 \$100

신청일자:200 년 월 일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교회를 거룩하게 민족을 성결하게" 기성 제110년차 정기총회 개막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제 110년차 정기총회가 '성결교회 민 족의 희망, 사중복음 우리의 사명' 을 주제로 24일 경기도 부천시 소 사구 서울신대에서 막을 올렸다.

총회에 참석한 700여명의 대의 원들은 110년 동안 성령운동을 기 반으로 이어온 성결교의 신앙을 더 욱 견고히 하자고 다짐했다. 개회예 배에서 '미래지향적인 교회'(행 11:19-26)를 제목으로 설교한 유

동선 총회장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 고, 이 민족을 성결하게 하며 땅끝 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임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개회 예배에는 한국교회연합 조일래 대 표회장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 영훈 대표회장도 참석해 축사를 전

임원선거는 25일 오후에 치러진 다. 이변이 없는 한 현 부총회장인

여성삼(천호동교회) 목사가 관례대 로 총회장에 추대될 전망이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는 신상범(새빛교 회) 목사가 단독으로 나섰다. 당초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경선으로 치 러질 예정이었으나 후보였던 이원 호(소양교회) 목사가 지난 3월 교 통사고로 갑작스레 별세해 단독 후 보가 됐다. 장로부총회장 선거는 김 춘규(청계열린교회) 김경호(홍은교 회) 장로가 경선을 벌인다. 서기 후 보에는 성찬용(청파교회) 목사, 회 계 후보에는 임평재(서산교회) 장 로가 단독으로 나섰다.

"한기총·한교연·NCCK 즉각 해체, 하나로 출범해야" 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 사)는 18일 '격변하는 사회, 한국교 회 교단연합기관들 하나 되어야'라 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논평에서 "한국교 회가 사나운 시대의 격랑과 세파를 헤쳐 나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

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라 며 "이를 위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한국교회연합(한교연)·한 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즉 각 해체시켜 하나로 출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한기총·한교

연·NCCK의 대표와 임원들도 하나 님 앞과 엄혹한 역사 앞에서 그리 고 한국교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모든 기득권과 자존심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더 이상 여타의 변명으로 한 기총·한교연·NCCK의 단일화를 미 루거나 방해하는 일은 역사의 죄인 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교회 폄훼 보도, 현명한 대응 원칙 필요" 한국교회언론연구소 정기포럼

"지금 한국교회는 개별 교회를 중심으로 내부지향적 공동체만을 고집하면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 다."

19일 한국교회언론연구소(이사 장 임은빈 목사)가 서울 종로구 김 상옥로 연동교회(이성희 목사)에서 개최한 제1회 정기포럼에서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는 이같이 지적했다.

'소셜 미디어 확산과 기독교 관련 언론 보도의 현실'을 주제로 발제한 이 교수는 사회적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사 분석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옥성삼(크로스미디어랩) 원장은 '교회의 언론피해와 10가지 대응 원칙'(표 참조)을 공개했다. 그는 "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된 교회 관 련 피해 구제는 대부분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 상 청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 교회의 언론피해는 교회의 특수성 이 우선시되기보다 사회 일반의 상 식과 법적 시각에서 이뤄짐을 염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천지 포털에 웹툰으로 네티즌 저격 "속지마세요"...네이버와 다음에 'REVELATION'

신천지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 'REVELATION'이라는 이 름으로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만화 연재를 시작했다.

지난 9일 네이버 웹툰 도전 만화 와 다음 웹툰에는 'REVELATION' 이라는 제목의 만화가 올라왔다. 웹 툰의 제목 'REVELATION'은 폭로, 계시, 적발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지만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웹툰은 지난 5월 9일 1화를 시 작으로 2화까지 연재됐다. 만화 속 에서 신천지는 새천지로 표현됐으 며 기성교회가 개종교육을 통해 새 천지를 핍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

만화 속에는 CSB 방송국도 등장 한다. 이 CSB 방송국은 기성교회 목사에게 돈을 받고 '새천지'에 대 한 거짓방송과 왜곡보도를 하고 있 다고 표현했다. 이는 신천지가 CBS 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천지는 지난 4월 29일 CBS 목 동 사옥 앞에서 '거짓 허위방송, CBS 폐쇄'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동여매고 '한기총 해체'를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또한 만화 속에서 '새천지에 다니 는 사람들은 납치와 폭행 감금을 조장하지 않는다'며 '납치와 폭행을

하고 감금 시키고 가출가지 하게 하는 것은 새천지가 아니라 그 가 족들'이라며 '사람들은 가족을 살리 고자 개종목자의 지시에 따라 납치 를 하고 도망치지 못하게 손발을 묶고 억지로 개종교육을 받게 한다' 고 표현했다.

23일 웹툰 3화에는 '본 웹툰은 나기자'와 '이양심'이라는 가상의 인 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현재 한 국기독교계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 는 사실 그대로의 배경으로 기획되 어 제작되었다'고 밝혔다.

이 웹툰 1화는 네이버 도전 만화 에서 2주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 겼으며 조회순 기준으로 1위에 링 크돼있다.

신천지는 그동안 동영상 공유사 이트 유튜브를 통해 성경강의를 이 어왔다. 하지만 이번 포털 사이트 웹툰을 이용한 홍보는 미디어에 노 출되기 쉽고 웹과 모바일 환경을 이용하는 청소년 청년들을 겨냥한 것으로 친숙한 웹툰을 통해 자신들 의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신앙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 구된다.

이 웹툰을 본 네티즌들은 온라인 에서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네티즌 들은 "신천지 홍보하려고 만든 만 화에 신천지 신도들이 댓글 달고 웃기다" "신천지가 그린 만화네요" "속지마세요 미혹 당하지마세요" " 신천지 만화로 홍보한다고 애쓴다" "아휴 그림솜씨도 좋은데 대단한 재능낭비네요"라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충격이다. 이 게 교회의 현실이라니" "한국 기독 교 이렇게까지 썩어 있다니" "다음 편이 기대된다" "이것이 사실이 아 니고야 이렇게 당당히 쓸 수 있을 까?"라고 말했다. 신천지를 옹호하 는 댓글 가운데는 신천지 소속의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웹툰을 본 CBS는 지난 19일 공식 페이스북에 "굳이 이 웹툰을 찾아가서 보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복창 터질 뿐더러 그게 신천지가 노리는 것입니다. 대신 CBS, 국민 일보 등 기독 언론이 선두에 선 이 단 신천지와의 영적 전쟁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동참해 주십시오. 행동해 주십시오. 저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선교기관이자 언론기관으로서 저희의 맡은 바 사 명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

한편, CBS는 23일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요한지파장, 신천지 마태지 파장,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대 표 박상익씨 등 4명을 업무방해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단 식별 카메라 작동 중' 교회 부착문구 온라인서 화제

한 교회에서 이단 출입 금지를 위해 붙여놓은 문구(사진)가 온 라인에서 화제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는 '한국 기독교 과학수준'이라 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 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교회 출입문 왼쪽에 'CCTV 작동 중',

빌려 이단을 색출할 수 있는 모 양"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요즘 몰래 교회를 드나드는 이 단 신천지들의 '출입금지' 팻말을 좀 코믹하게 바꿔 붙인 것 같은 데 이게 개그 코드인지도 모르는 외부인들이 욕을 하는 것도 우습 다"는 반응도 있었다.

단건물(주거) 침입죄, 업무 방해 등의 이유로 형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최소한 구속력을 가질 가 능성이 있다고 보고 궁여지책으 로 붙인 것. 이단들은 교회 신도 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교인들 에게 다가가 교회를 등지게 하고 교회 내 분열을 조장하기도 한다.

이단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 최 근 일부 교회에서는 CCTV를 활 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단들의 활동이 워낙 은밀하고 교묘해 분 간을 해내기가 쉽지 않다. 사진

얼마나 속 썩었으면… 재밌고도 씁쓸한 풍경

오른쪽에는 '이단 식별 카메라 작 동 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네티즌들은 '이단 식별 카메라 작동 중'이라는 문구를 보고 "신 천지 가려내는 세계적 기술을 갖 고 있는 듯" "CCTV 업계에서 일 하고 있는데 힘 빠지네요. 교회보 다 기술력 없는 회사라니" "교회 의 신기술" "삼단 식별은 없나 요?" "특허 등록은 했나요?" 등의 댓글을 달며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신의 권능을

각 교회들이 이단의 잠입을 막 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교회 출 입구에 '이단출입금지' 문구가 부 착돼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도둑 출입 금지'라고 써붙인다고 해서 도둑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듯이, 이단들도 이 문구를 무 시할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각 교회가 이 문구를 부착하는 이유 는 교회에 무단으로 출입해 활동 하는 이단들에 대해 법적으로 제 재할 아무런 장치가 없기 때문이 다. 경고 문구를 부착할 경우 무

속의 교회는 '이단출입금지' 문구 를 재치 있는 유머로 표현한 것 으로 보인다. 이단 침입을 막기 위해 고심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다는 반응이 많다.

물론 이단을 식별할 수 있는 카 메라는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 말씀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게 될 때 교회 입구에 이런 문구를 붙일 필요가 사라지지 않을까?

한인세계선교! 이대로 가도 좋

은가?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회의

선교 패러다임은 이원론적이었다.

교회는 헌신된 극소수의 사람을 파

송하고 뒤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만

족해했다. 선교는 파송 받은 자가

하고 교회는 수동적으로 밀어주면

몫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한 곳이

많았다. 이 마저도 약 30% 정도의

교회일 뿐이다. 절대 다수의 교회

는 해외선교를 하지 않고 있다. 결

과는 어떠한가? 인구 성장 비율을

따라 잡기는커녕 오히려 쳐지고 있

예나 지금이나 세계 2/3의 인구

가 아직 그리스도를 불신앙하고 있

다. 이제 뭔가 특단의 조치가 강구

로 사람 보다 교회를 파송하는 전

략이다. 그것은 현지에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로 하

여금 현지 선교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왜 디아스포라인가?

다.

다. 이 숫치는 대한민국 군인 전체

의 2배를 초과한다. 이렇게 한인 디아스포라는 수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잘 준비되어 있

그들은 선교적 영성을 지니고 있

으며 헌신도도 뛰어나다. 또한 현

지 언어와 문화적으로도 적응을 잘

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비자 문제 도 없고, 재정적 지원이 없이도 자

비량하며 사역할 수 있다. 그들은

이주한 나라에 더부살이로 살아왔

기 때문에 선교지의 약자나 소수

민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들

은 이민자로서 수많은 애환을 경험

했다. 따라서 선교지에서의 어지간

한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파

할 수 있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한 선교 도전

디아스포라 개념의 유래

디아스포라(diaspora)는 본래 이

산(離散)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이

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자

국민들을 이주시켜 세력을 확장하

였다. 이때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이주와 식민지 건설을 의미하는 단

어로 사용되었다. 디아스포라가 본

격적으로 쓰인 것은 AD70년 예루



선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외 한인 동포는 약 700만 정도이며 그 중 4/5가 중국, 미국, 일본에 있 다고 한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는 유동 인구까지를 합산하며 아마도 178개국에 750만 동포는 될 것이 다. 남북한 인구의 1/10이 한반도 를 떠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셈 이다.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

한국은 원래 배타성 및 폐쇄성이

를 냈으며 많은 한인들을 밖으로 탈출하게 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된 남북 아메리카와 유럽 이민물결이 있었다. 그리고 반세기가 넘는 냉 전체제의 압박과 한반도 안팎의 크 고 작은 사건들이 코리안 디아스 포라 증가를 가속시켰다. 현대적으 로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하나 의 계기가 되었다. 자신감을 얻은 한국 정부는 1989년 비로소 세계 여행자유화 정책을 폈다. 이로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 동원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는 엄청난 선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Christian Today 통계에 의하면 2015년 말로 해외 한인교회 수는 5.880이며 이중 북미주에 4.730로 집계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기독 교인은 약 20%이나 해외 경우는 40%가 넘는다. 이것은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독특하게도 교회를 중심 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증 거이다. 이 교회들은 타문화권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그곳에는 많은 인적 자원과 재정 그리고 교 회 건물이라는 하드웨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선교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 한인교회는 첫째, 성 도들을 전문인 선교사로 훈련시키 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다양한 직 업의 전문성과 선교적 열심 그리 고 언어, 문화적으로 자질이 있는 고급 일군들이 많다. 둘째는 주변 의 종족들에게 훈련된 교우들을 보 내 직접 선교를 하는 것이다. 준비 된 일꾼들은 교회의 뒷받침 속에

현지인들을 양육시켜 그들 자신의 종족 가운데로 재 파송할 수가 있 다.

셋째는 해당 지역의 선교사들과 전략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다. 현 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생활 과 심적으로 기댈 수 있는 한인 교 회가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은 지 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파송 교회가 채워줄 수 없다. 만일 27,000명의 선교사가 현지에 베이 스캠프처럼 선교기지화 되어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연합한다 면 한인 세계선교는 어떻게 될까?

맺음 말

한인 디아스포라! 세계 178개국 에 750만 명이나 흩어져 살고 있 다.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한인이 없는 곳이 없다. 한인이 있는 곳에 는 반드시 교회가 있다. 해외 한인 공동체는 교회를 중심으로 엮어져 있다. 여기 주 구성원인 한인 크리 스천은 선교적 DNA를 가지고 있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다른 어느 민족도 흉 내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한인 디 아스포라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 적 동기와 사명을 가질 수밖에 없 다.

이제 21세기 선교의 동력으로 떠 오른 한인 디아스포라와 그 교 회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초 기 유대인 회당이 선교의 전초기 지로 쓰임 받았듯 한인 디아스포 라 교회가 선교적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이제 영적 최전선 에 자리하고 있는 해외 한인교회 는 교민이란 울타리를 헐고 열방 을 향해 과감한 사역적 도전이 있 기를 기대한다. Missional Church 로서!

jrsong007@hanmail.net

사도시대 유대인의 회당은 선교 전초기지로 쓰였다. 현재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는 5,880개나 된다. 이 교회들이 Missional Church로 변화될 때 선교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되어야 한다. 그간 해온 전통의 방 안으로는 결코 세상을 앞질러 갈 수가 없다. 새로운 대안은 무엇인 살렘이 로마에 함락된 후부터이다. 가? 전, 후방이 없이 모든 교우, 모 외세의 침략으로 전 이스라엘이 세 든 교회가 선교적으로 일어서야 한 계로 흩어졌기 때문이다. 이때의 다. 그 일환으로 선교 패러다임을 디아스포라는 자발적인 이산이기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단선적 보다는 중심부에서 밀려난 것으로 인 기존의 선교사 파송을 지속하 이해된다. 그러나 중세 르네상스 이후부터 인간문명의 발달과 함께 되 이미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한 인 디아스포라를 선교적으로 동원 자연적인 인구 이동이 일어나기 시 하는 것이다. 나아가 약 5,800개의 작했다. 자연히 디아스포라의 개념 한인 디아스포라교회들이 도 피동성에서 능동으로 변하게 되 Missional Church로서 역할을 할 었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앞으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일반적으 로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 이 모국을 떠나 세계 여러 지역으 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한민족 분 산"으로 정의된다. 한국 외교통상 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재

강했다. 지리적 위치, 정치적 이데 올로기, 인종, 언어, 문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흩어지기 어려운 환 경을 지니고 있었다. 일종의 유대 민족과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한인의 한반도 편중이 깨지기 시 작한 것은 일제시대 부터이다. 20 세기 초에는 한반도에는 남, 북한 인구가 약 2천만 정도였다. 그런데 일제 36년의 침탈 가운데 무려 1/3 의 인구가 해외로 흩어지는 드라 마를 연출했다. 기근과 핍박 등으 로 살 길을 찾아 민족 대이동을 한 것이다. 그 이후에도 1937년 스탈 린에 의한 연해주 교포들의 중앙 아시아 강제 이주가 있었다. 무엇 보다 6.25사변은 엄청난 인명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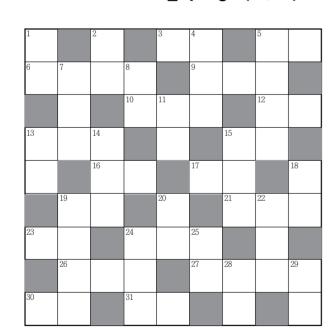
학업, 사업, 여행 등 다양한 목적의 한인들이 전 세계로 쏟아져 나오 게 되었다.

한인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잠재력

하나님께서는 동방 '은자(隱者) 의 백성'(the hermit nation)인 한 민족을 긴 동면에서 영적으로 깨 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세계 방방 곡곡으로 흩으셨다. 이는 이스라엘 을 흩어 선교의 과업을 이루게 하 신 하나님께서 한인에게도 동일한 목적으로 일하신 것이다. 이제 한 인은 전 세계 곳곳에750만이나 산 재하고 있다. 이중 20%만 그리스 도인이라 가정해도 150만이나 된

십자말 • Cross Word (126)

김기호 장로(본지고문)



<가로 푸는 열쇠>

- 3. 사내 아이(욜3:3).
- 5.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하였더라(창39:6).
- 6. 공관복음서중 둘째.
- 9. 큰 일과 작은 일(삼상20:2).
- 10. 성막의 문(출26:36).
- 12. 샘을 내어 미워함(약3:16).
- 13. 종교나 미신, 또는 주의 사상 등을 미친 것처럼 믿는 사람.
- 15. 평평한 들(대상27:28).
- 16. 코 밑, 턱, 뺨에 나는 털(레13:29).
- 17. 먼지와 흙(삼상2:8).
- 19. 가장을 중심으로 한 부부나 어버이와 자녀들의 모임(갈6:10).
- 21. 오랜 시일을 두고 오는 비(겔34:26).
- 23.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이것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창25:34).
- 24. ○○○이 포도청(속담).
- 26. 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렘37:10).
- 27. 모압 땅에 있는 동네 이름(사15:8).
- 30. 굳세고 큼(단8:8).
- 31. 남자가 아내를 맞는 일(고전7:33).

<세로 푸는 열쇠>

- 1. 이스마엘의 아들이다(창25:14).
- 2.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사(눅24:51). 4. 대한민국 국보 1호(상식).
- 5. 레위인으로 악사였다(대상15:21).
- 7. 짐승 껍질로 만든 신발(겔16:10).
- 8. 사람의 발음기관에서 생기는 음향(욥37:4).
- 11. 몹시 심하다(시119:107).
- 13. 밝은 빛(슥14:6).
- 14. 보라색의 투명한 6각 기둥의 결정체(출28:19).
- 15. 매장할 때 땅위에 봉분을 만들지 않고 하는 매장(눅11:44).
- 18. 자기를 겸손하여 낮춤(고후10:1).
- 19. 가죽으로 만든 부대(삼상16:20).
- 20. 간절히 구함(빌1:4).
- 22. 스불론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던 성읍(수19:10).
- 24. 예수님의 또 다른 칭호(벧전5:4).
- 25.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 마소의 목에 얹는 기구(마21:5).
- 28. 사람의 말을 적는 부호(출32:15).
- 29. 아셀 사람 헬렘의 둘째 아들(대상7:35).



아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강사: 라흥채 목사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323-665-0009(LA)(판매)

God's time 70번째 이스라엘 희년과 한국광복 · 분단 70년 이스라엘의 회복과 통일과 한민족의 부르심을 위한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회 IN ISRAEL」

정 | **2016년 6월 21일(화) ~ 30일(목)** (총 9박 10일 / 3일간 성회, 5일간 기도투어)

소 | 예루살렘, 텔 엔 나스베(미스바) 및 이스라엘 주요 성지

참가대상 | 한국교회, 믿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최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관 | 한국교회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회 준비위원회, 이스라엘 미스바 준비위원회

후원기관 | 국민일보, 극동방송, CTS기독교TV, CBS기독교방송, CGN TV, BradTV, JOY예루살렘방송, KNT.ISRAEL





신신묵 목사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릭라이딩스 목사 예루살렘 수캇할렐



탐헤스 목사 예루살렘 열방 기도의집 대표



아셀인트레이터 목사 Revive Israel 대표



기독교대한감리회

하난 루카츠 목사 (메시이닉 유대인 이스라엘 연합회장), 미카엘 야론 목사 (테힐라트-야교회 담임), 안드레아스 목사 (Father's house 대표),



강문호 목사 갈보리교회 담임



유석근 목사 알이랑교회 담임

긴증 │ 다니엘박 교수, 장○○ 선교사, 탈북자 ○○○



김한식 목사 한사랑선교회 대표

5. 연합

1. 회개

6. 통일

7대 핵심가치

2. 십자가의 도

3. 이스라엘의 회복

4. 한민족의 부르심

7. 부흥

취지와 목적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겔 37:9)

▶주님의 재림을 위한 두 가지 충족조건

복음이 모든 족속과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마 이스라엘(출 19:6)의 중보를 힘입어 우리 민족의 24:14)과 함께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됨(마 23:39)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 필수적인 두 가지 충족조건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스라엘로 달려가서 그리스도의 생 기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웁시다! 세 계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반유대주의 핍박사를 동 일시 회개합시다!

그리고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축복합시다! 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엡 2:15)을 이 룹시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공동운명체

이스라엘과 같은 셈의 후손(창 10:21-31)인 한민족 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할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 41:25;55:5, 롬 10:19-20, 계 7:1-3).

또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왔듯 이, 2016년 남북분단 70년이 된 지금 하나님의 통 7:14).

치의 중심 예루살렘(시 122:5)에 올라 제사장 국가 염원, 통일을 주께 간절히 구합시다!

정연호 교수 (홀리랜드대학 부총장), 벤자민 오 목사 (미국 뉴저지 사랑과진리교회 담임)

마지막 때, 이란과 북한의 핵전쟁의 위협 속에서 멸절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과 한국이 형제요 공 동운명체로 서기로 결단합시다!

이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남북통일을 이루시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복음으로 축복하는 마지막 선 두주자로 우리 민족을 세우실 것입니다.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이 떠남으로 처하게 된 위기의 지금, 사무엘의 때 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도 미스바로 모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부르짖어 회개하고 주님의 얼 굴을 구합시다!

그리하면 이스라엘과 한국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 의 영광이 머무르는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대하

한국 교회여!

2016년 6월 이스라엘로 달려가 예루살렘에 올라 미스바로 모입시다!

등록 및 참가 회비 안내

한국에서 참가하실 분 – 320만원 (항공료, 숙박, 기도투어 포함)

해외에서 참가하실 분 - US \$1,400 (숙박, 기도투어 포함, 항공 티켓은 각자 구입)

예약금 - 한국참가자 30만원, 해외참가자 US \$200 (입금 후 전화 확인, 환불 불가)

수 – 한국교회 미스바 기도성회 준비위원회 등록계좌 – 우리은행 1002-081-777153 오재복(미스바기도성회)

의 - 한국 070-7532-9327, 02)445-4735

(1636) 누르고 '미스바대각성기도성회'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www.mizpah,kr mizpahprayer@naver.com

이스라엘 문의 - 이정훈 (972)058-689-9348 mizpah2016@gmail.com

한국 및 해외 협력기관

▶ 한국

국가기도회, 굿피플의사회, 기독교영성총연합회, 기독의사연합회, 시니어선교한국, 어글로, 이스라 엘사역네트워크(IMN), 탈북자동지회, 통일한국기독연합,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실업인회, 한국컨버 케이션, 한사랑선교회, 항아리엔터테인먼트, ANI선교회, HIM, KCSJ, 274얼라이언스 등

▶ 해외

미주기독교방송국, 일본글로벌미션센터, 일본만국기도의집, 파리기도의집 등

후원계좌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회"에 후원하여 주십시오.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327-20-111666 사단법인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국민은행 699201-01-264970 김한식(미스바대각성성회)

이 헌금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통일과 한민족의 부르심을 위한 한알의 밀알이 될 것입니다.

미스바 기도회

매 주일 저녁 6:00 서울한사랑교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17) 대중교통 이용시 :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⑤번출구, 마을버스 서초18번, 서초21번, 강남10번 한정거장 뒤 하차 ⇒ 직진 100m 우리은행 끼고 우회전 ⇒ 서울미디어빌딩 지하 문의 : ☎ 070-7532-9327, 02)445-4735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회 **IN ISRAEL**



내가 먼저 회개하며 섬기는 분들 (미스바 준비위원회)

상임고문	김선도 김홍도 서기행 조용기 지 덕				
자 문 위 원	강기원 김기안 김길수 김명희 김소자 김영수 김옥자 김운복 김철환 김희신 문희성				
(2016 년도	박무용 박종덕 박중선 배동률 배타선 서안식 서태원 송덕준 신상현 안만길 안이영				
교단장)	양연길 유동선 유영식 윤광섭 이광훈 이규일 이규희 이동춘 이명구 이문규 이애라				
EC6/	이재범 이재응 이태준 임종원 임창무 장종현 전용재 전정수 정동환 정순균 정일량				
	조갑문 지영철 채영남 최부옥				
대 회 장	신신묵				
상임대회장	강문호 권병기 김동권 김재권 김진호 박태희 안성옥 윤석전 정인도 최병두				
실무대회장	한창영				
공동대회장	김재송 김해철 박정근 오 건 원종문 이규희 이상형 정인도 최윤권 홍순경				
준비위원장	김한식				
부 위 원 장	김기원 김병운 김에스더 김유손 김홍대 류성렬 배차선 윤경원 이강구 장병찬 전덕호				
11120	조상범 조석규 제이콥권 최창규				
본 부 장	성동경 이예경 이혜훈 이 호 최경숙				
상임총무	김탁기				
실 무 총 무 김 동구 박덕근 박상구 양영오 한동철					
서기 / 이홍규					
사 무총 장/이지	li형 감사/권상윤 홍덕선 기획조정실장/박재남 진행/오바룩				
대외현력/부성	선범 호보/소요센 중보기도/반던근 군제현련/이 정 핵정/익경희				

이스라엘 미스바 주비위원회

고 문	김성한					
부위원장	강태윤 윤덕재 조형호	준비위원	서영주			
실행총무	장창근					
*	권바울 김정혁 명형주 서영주 여호수아 요나티 육동일 이종은 정규채 조이스정					
총 무 단	차서웅	서 기	이정훈			

남 · 북간에 사랑의 결연을 위하여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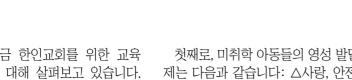
남한의 ①교회 ②미스바 참여자 ③탈북자 ④의료진 ⑤뜻을 함께 하는 분은 누구나 ①~⑤까지의 분들이 한 팀이 되어서 남 · 북간에 자유 왕래가 실시되면 북한의 군 단위 지역에 가서 치료 (의료진들이 휴가를 북한에서 보내기 운동을 실시)와 기도와 식량, 의약품 등을 나누는 사랑의 결연 운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한인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10)

7. 안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안인교익를 위안 심리악잭 기초 (34) (Psychological Foundations for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첫째로, 미취학 아동들의 영성 발달과 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 안전감, 훈육, 기쁨, 그리고 예배 등을 경험한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여타 다른 기 독교적 실재들에 대한 개념과 자각을 발 달시키기 시작한다. △하나님, 예수님, 교회, 자아, 그리고 성경에 대한 바른 태 도를 발달시킨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개 념들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다.

둘째로, 학령기 아동들의 영성 발달과 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 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기독교적 사랑과 책임에 대한 지각을 기른다. △기독교적 실재들에 대한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다 져 나간다. △신앙과 기독교적 삶에 적 합한 기본적인 성경적 가르침들을 배운 다. △건강한 자아상을 계발시킨다.

수 있는 부분을 타진하고, 또한 성경적 인간이해에 위배되는 부분들과 편향적 인 부분들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특히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제시된 많 은 연구들과 그 연구 결과들이 서구사회 를 바탕으로 한 인지적 구조주의의 경향 이 강해서, 인간이 가진 다른 다양한 측 면이 도외시 되었고, 인간의 발달과정에 단계들을 상정하여 이들을 일괄적인 단 힌 시스템 안에 가둠으로써 인간발달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으며, 또한 서구사회의 인간들 을 연구의 주 대상으로 삼아 다른 문화 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간 경험들 을 제외하고 서구사회 문화권에서 이루 어지는 인간의 경험들이 마치 인간 발달 의 기준인 것처럼 전제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부인하도록 이끌었던 부분을

인간발달이론을 기독교적 비평과 분별력 가지면 교육사역에 효과적 성경적 진리와 상충하나 가이드라인 제공, 사용프로그램 평가에 도움

쳐 있습니다.

즉, 인간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 또한 해당 분야에서 나 이에 따라 어떠한 발달과제들을 갖게 되 는지를 연구해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삐아제(Jean Piajet)는 인간의 인식 발달 (Cognitive Development)분야에서, 에 릭슨(Erik Erikson)은 인간의 심리사회 학적 발달(Psychosocial Development) 분야에서, 콜버그(Lawrence Kohlberg) 는 인간의 도덕 발달 (Moral Development)분야에서, 파울러(James Fowler) 는 인간의 신앙 발달(Faith Development)분야에서, 그리고 비치크(Ruth Beechick)는 인간의 영성 발달(Spiritual Development)분야에서 연령에 따 른 발달의 양상과 특성 및 과제 등에 대 해 연구하고 이론들을 정립해왔습니다.

예시로 들은 위의 이론들을 비롯한 많 은 다양한 발달이론들을 이 이야기에 서 모두 다 자세히 다룰 수 없기에, 비 교적 구체적인 발달과제들을 제시한 마 지막 예시인 비치크의 영성 발달에 대 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 다.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 논의 들의 주된 자료가 되어주고 있는, "기독 교교육의 기초적 이슈들"(Foundational Issues in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로버트 패즈미뇨(Robert Pazmino)는 비치크가 제시한 4단계의 기독교인들의 연령대별 영성 발달 과제 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청소년기 학생들의 영성 발달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의 삶 에서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배 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 고 받아들인다.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기독교적 사랑과 책임에 대한 지각을 기 른다. △적 그리스도적인 사회적 압력들 에 강력한 기독교적 인격을 다지도록 한 다. △신앙관련 지성적 공격들에 대비하 여 성경적 지식들과 논리적 지적 기술들 을 발달시킨다. △지속적으로 건강한 자 아상을 계발시킨다. △기독교적 봉사의 책임을 수용한다. △영원한 기독교적 가 치들의 기초 위에서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을 배운다. △하늘의 것을 추구 하는 자기 훈련을 늘려 나간다.

마지막으로, 성인들의 영성 발달과제 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 성숙과 배움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인다. △하나 님과 이웃을 향한 성경적 책임을 수용 한다. △하나님 중심한 통일되고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다 자세히 다루지 는 못했지만, 우리 사역자들은 자체적으 로 학습을 하든, 세미나를 개최하든, 다 양한 인간 발달 이론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요즘에는 인터넷 정보들만 잘 활용하여도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론들 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다 음세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 는 부분을 찾고, 우리의 사역에 응용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들이 인간의 전인성, 다양성 및 문 화적 평등성 등의 성경적 진리와 상충한 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달이론들은, 심지어 신앙 발 달이론이나 영성 발달이론조차도 한인 교회 교육을 위한 연령별 교육내용을 제 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령대 에 어떠한 수준 및 양상의 내용을 선택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 공할 수는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는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방식으로 고등 부 학생에게는 저러한 내용을 저러한 방 식으로 가르치면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 적일 수 있겠다는 교육내용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로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많은 비판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론들이 우리들에 게 유용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객 관적으로, 하나의 경향성으로 이러한 이 론들을 적용하되, 절대적인 것으로 맹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적 비 평들을 염두에 두고 분별력을 가진다면, 우리 사역자들은 현존하는 발달이론들 을 우리의 교육사역에 효과적으로 적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우 리 한인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의 심리 학적 기초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교육 / 생활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주님의 사역방법(마12:19-21)찬509장

그리스도 사역의 특징은 조용하게 아버지 의 구속을 모두 이루신 일입니다. 첫째, 그 는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주장하면 아무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앞에서 침묵일관하심으로 진리를 들어내는 참 선지자셨습니다. 친히 가르치신 대로 자 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본을 보 이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말이 많은 세대 싸우기 쉬운 때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합 니다. 둘째, 조용하게 일하셨습니다. 겸손과 온유의 바탕으로 일하셨습니다. 일하신 후 에도 숨기를 잘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 적을 행하시고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사 람들의 눈길을 피해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 하셨습니다. 마침내 원수를 단숨에 처리하 실 수 있으신대도 스스로 십자가를 택하심 은 그 길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마12:22-29)찬221장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하셨 음을 본문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첫째, 귀신 들린 자를 성령으로 쫓아내심이 증거합니다 (28). 바알세불에 의하여 치유한다는 바리새 인들의 비평은 도리어 그 나라의 임함을 더 강하게 증거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들은 눈이 어두워 강하게 일하는 그 나라를 알 수

없었습니다. 둘째, 더 강한 자이신 그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29). 사단의 권세를 제어 할 수 있는 그 왕이 임하신 비유는 하나님 나 라가 그 백성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선포하 며 그 나라의 왕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선 포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능력이 움직임 을 확신하여 이 시대를 이깁시다.

수 성령훼방 죄(마12:30-37)찬337장

그리스도의 속죄로 모든 죄가 사함 받으 나 성령 훼방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그것은 성령 의 증거를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일이기 때 문입니다(30-31). 그래서 반복적인 습관화 된 죄가 위험합니다. 둘째, 최종 증거자 인 성령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32).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룩하여 성 령으로 영화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말을 조 심해야합니다(33-36). 행함의 열매는 착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착한 마음은 성령의 역 사로 생기고 말로 나타납니다. 무익한 말 한 마디로 심판을 받는 이 엄중한 선포 앞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합니다. 말 한 마디가 성령을 훼방하는 죄가 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표적(마12:38-45)찬102장

주님이 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지적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 고 기 배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 니느웨에 말씀 을 전해 큰 부흥을 가져온 사건은 그리스도 의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미리 보여줍니다 (39-40).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온 세 상에 복음이 증거되어 큰 구원운동이 일어 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것은 솔로 몬의 지혜를 들으러온 남방여왕의 놀람처럼

온 세상의 자기 백성이 몰려와 그리스도의 지혜를 듣고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 다(42). 셋째, 이 세대는 많은 표적을 구하나 이 진정한 표적을 거절한 이유는 일곱 마귀 가 일하기 때문입니다(43-45). 그러나 요나 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일하시니 반드 시 그의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 안에 거 하는 우리는 그 실상을 즐기며 힘써 증거해 야 합니다.

금 예수님의 가족관계(마12:46-50)찬94장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첫째, 혈연관계 를 뛰어넘습니다(50). 이것은 혈연관계를 무시함이 아니고 영적인 연합관계가 우선 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가족관계를 통해 구 원역사가 많이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일반 은총이 구원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 나 구원관계는 더 높고 깊은 관계 곧 성령 세례의 연결로 돼있습니다. 거듭남이 없으 면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하

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 만이 그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의 뜻은 성경이고 행함은 성경의 기준을 따 름입니다. 셋째, 영생의 교제가 이뤄져야 합 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영생의 관 계는 오직 성령의 교통으로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영적인 교제입니다. 믿는 자의 권세 는 바로 그때 나타납니다. 주님의 가족관계 를 존중히 여깁시다.

토 세 가지 위험(마13:1-17)찬197장

의 그리스도인이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구 원받은 후 계속되는 신앙생활에 3가지 문제 즉, 염려, 재리의 유혹 그리고 일락의 위험 이 언제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세상 적 근심이 위험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근심 은 회개로 나아가게 하지만 세상적 근심은 불신앙으로 사망에 이르며 자기 양심을 찔 러 화인 맞은 심령이 되게 합니다. 모든 염 려를 주께 맡기는 신앙을 가져야합니다(벧 전5:7). 둘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위험합니

본문에 나타난 네 밭 중 가시밭은 대부분 다. 돈은 귀하고 필요한 것이나 그것을 잘못 관리하면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셋 째, 일락이 위험합니다. 일락을 사랑하는 자 는 살아있다고 하나 벌써 죽은 자라는 사도 의 진단대로 우리로 경건의 길을 포기하게 하고 세상의 종이 되게 합니다. 즐거움을 떠 나 살 수 없지만 경건의 즐거움을 가짐으로 이것을 통제해야 합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 을 옥토로 바꾸십시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131-231)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양곡교회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151-029)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든든한교회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승동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열나에바: 오후 9:00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추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쿠 1:30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1부예배: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로마한인교회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시은소교회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호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담임목사: 김성길

추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1부예배: 오전 7: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3.5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새에덴교회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신시 수지국 죽전동 1312번지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주안교회



추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294-10(403-838)

성문교회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신천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7:30 주일2부예배: 오전9:3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주일4부예배: 오후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3:00 새벽기도회: 오전5:00/6:00

Tel:(02)418-0481 Fax:(02)422-0751 서울시 송파구백제고분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창대교회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분 청주시 흥덕구 사장동 259-12

청주주님의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성실교회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신촌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에배: 오후 1:30



담임목사: 김정곤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도 870-10호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에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Tel.(011)82-2-927-5511 서울 동대문구 제기 2동 146-7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신임 총회장 고택원 목사(새한장로교회 담임)

"낮은 곳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

-총회장 당선을 축하드리며 소 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인교단 중에서 가장 크 고 모범적인 교단 중의 하나인 저 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의 총회장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먼저 하나 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선출 해주신 총대원 여러분에게 진심으 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이 믾 은 자신이기에 어떻게 일을 감당 할까 하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 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은 그리스 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통로임 을 믿으며 오히려 기쁘고 담대힌 마음으로 한 회기 동안 힘을 다하 여 교단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충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1년 동안 총 회를 이끌어 나갈 비전과 계획은?

이번 총회의 주제가 "비전과 열 정의 사람이 되라"(Be a Man of Vision and Passion)는 것이었습 니다. 이것은 큰 틀이며 원리입니 다. 비전은 목표요 방향입니다. 열 정은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힘이 며 추진력입니다. 믿는 자의 목표 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열정 은 자연히 생깁니다. 바울처럼 "뒤 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 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첫째, 교단의 위상을 확립하고 회원 간에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 는 일에 주력할 것입니다.



저희 교단은 3-4년 전에 어려움 을 겪었는데 아직도 약간 잔재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피해를 입

회원 간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기 회를 만들어 유대를 강화할 수 있 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통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 낮에는 총회 역사 상 처음으로 회무 없이 액티비티만 하는 시간 을 가졌는데 모두가 각자 원하는 일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 졌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 다. 셋째 날 회의 진행은 화기애애 한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잘 이루 어졌습니다. 전 총대가 끝까지 자 리를 지키며 회의에 진지하게 임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문제들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깨끗하게 해 결되었습니다. 신경을 써야할 문제 들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 습니다. 거의 모든 총대들이 회의 가 끝난 후 만족하며 홀가분한 마 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셋째, 신입 회원을 위해 신학교 에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총장이신 Lillback 박사님과 비브 리컬신학교 총장이신 Frank James 박사님이 총회에 참석해 총 대들에게 신학교 소개를 하는 시 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기회를 발 전시켜서 앞으로 총회 대표들이 이상 서로 적대 감정을 갖거나 비 방하는 말을 하지 말고 믿는 자답 게 예의를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각자의 길을 가 고 있기에 서로의 길에서 하나님 께 충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 각합니다.

-총회장님의 목회철학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 대한항공 국제여객지점 에서 근무하는 중 소명을 받았습 니다. 근무환경, 근무시간 등 모든 조건이 제게 맞는 맘에 드는 직장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 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직 장에 일생을 바쳐도 후회가 없겠 는가? 그런데 대답이 '아니오' 였 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 살면 훗날 후회할 것 같았습니 다. '하나님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 고 싶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 렀을 때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자 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 습니다. 내 젊음과 정열을 아낌없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목사의 길 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인간 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일보다 더 가치 있 는 일이 있을까? 영혼을 살리는 일 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일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세상적인 부 귀나 명예가 별게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가난 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들에게 있었던 것 같이 낮은 데 마 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맡 겨주신 목장에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립니

남을 위해 살면서 누리는 기쁨 이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누리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의 은혜로 살아온 삶이 너무도 행 복했고 지금도 더할 수 없는 행복 을 누리고 또한 천국에 대한 확신 이 있기에 언제 주님이 부르신다 해도 '주님 지금까지 이 땅에서 너 무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후 회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서 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고택원 목사(63세)는 충청 남도 당진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철학과와 서울 고려신학교(M.Div) 를 졸업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고 려) 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 으며 도미, 웨스트민스터신학교 (Th.M)를 졸업하고 1989년부터 현재까지 필라델피아 새한장로교 회를 담임하고 있다. 필라교협 목 사회 회장과 교협회장을 지냈으며 한국군선교연합회 필라델피아지 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가족으로는 고광순 사모와의 사 이에 출가한 2녀와 사위, 손자손녀 7명이 있다.

교단 위상 확립, 투명한 총회 재정, 회원 간 신뢰 공고히 기쁨 주는 총회로, 신입회원 영입위해 신학교에 홍보활동 종교개혁500주년 기념행사●갈라진 총회는 각자 제 길로

었습니다. 총회 내에서는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생겨났고 밖으로는 교단의 위상이 손상되었습니다. 저 는 미력하지만 지도부에 대한 불 신을 해소하며 회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주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지도자들이 솔선수범 하며 희생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진실과 정직, 겸 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며 일하겠 습니다.

총회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공금을 소중하게 여기며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겠습니 다. 그리고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해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신뢰도 회복됨을 느 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뢰를 쌓 아갈 것입니다. 내적으로 신뢰가 회복되면 외적으로 실추된 교단의 위상도 회복될 것을 확신합니다.

둘째,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기 쁨이 되도록 회의 진행을 위해 힘 쓰겠습니다.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들이 만족 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이나 시간 사용이 잘 되게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 총회 개회 예배 시 전체 총대들이 죄를 자복하며

인준 신학교들을 방문해 총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신입회원들을 확보함으로 총회의 부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 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 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내년 봄 에 갖거나 아니면 가을에 갖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갈라진 총회 관련하여 말 씀드리면, 저희 총회를 떠나 새로 총회를 만든 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 바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

그 때 마음에 울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남을 위해 살아라. 남 을 위해 사는 것이 너를 위해 사는 최고의 길이다.' 하나님은 실례를 보여주면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물을 보아라. 그것이 자신을 위해 있는가 남을 위해 있는가?' 눈에 보이는 물건들 이 남을 위해 쓰임 받을 때 가장 가치 있음을 그 때 알았습니다. 피 아노, 의자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 등.... 그 때부터 저는 그 말씀을 삶 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유원정 기자〉

IS, 움츠러들었지만 테러 활성화 더할 수 있다! 포린 촐리시, IS 영토 축소로 인한 득실 보도

2014년 6월 29일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의 하부 조직에서 출발한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는 돌연 자신들이 '칼리프'가 통치하는 국가가 됐다고 전 세계를 향해 선포했다. 시리아 북서부 알레포에서 이라크 동부 디얄라까지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했 다. 이들은 한때 시리아와 이라크 영토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은 물론, 900만명이 넘는 인구를 거느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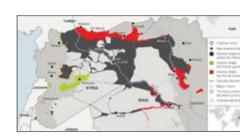
맹위를 떨치며 이라크 북부와 시 리아 일부를 점령한 IS의 꺼지지 않 는 확장은 미국을 주도한 동맹군들 의 다양한 공격들로 드디어 중지됐 고, 점령지를 하나 둘씩 잃어간다는 사실은 지난 1월부터, 서방 언론의 공통된 보도였다.

중동에서 맹위를 떨쳤다.

그런데 최근들어 IS의 위세가 예전 같지 않다. 미군 등 국제동맹군의 압박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포린 촐 리시(FP)는 최근 "IS가 가장 전성기일 때 이라크와 시 리아에서 장악했던 영토의 45%와 20%가량을 각각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Mapped: The Islamic State Is Losing Its Territory-and Fast).

력은 일단 점유하고 있는 점령지들 동맹군의 계속되는 공습과 미군의 을 다시 연합군이 재탈환했기에, 세 지원을 받는 이라크 정부군 및 러시 아를 등에 업은 시리아 정부군과의 력이 현저하게 약화됐다. 지속적인 싸움으로 세력이 급속히 약화됐다는 것이다.

이라크군은 지난해 12월 바그다 드 인근 요충지 라마디를 탈환한 데 이어 지난 3월부터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북부 모술 탈환전에 돌입했 다. IS가 장악했던 팔미라 고대 유 적을 탈환한 러시아군은 이달 초 유 적지에서 평화콘서트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영국 군사정보 분석기 관인 IHS제인은 자체 분석 결과 IS 의 영토가 한창 맹위를 떨치던 2014년 말에 비해 22%나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라크에서는 약 40%, 시리아에서는 10-15%가량의 영토 를 잃었다고 이 단체는 분석했다. USA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 개월 새 IS의 영토는 더 쪼그라든

계속되는 국제동맹군의 공세에 대응할 능력이 떨 어진 IS는 비대칭적인 대 응으로 테러만 남발하고 있다. 국가의 핵심요건인 영토 확보'는 온데간데없

고 본래 출신 성분인 테러 단체로서의 면모만 남은 셈이다. 이 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는 지난 11 일부터 17일까지 연쇄 폭탄테러가 잇달아 200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IHS제인 테러·내란연구소 매튜 헨먼 소장은 "연이은 테러야말로 IS 세력이 위축됐다는 증거"라며 "이 제 IS가 더는 영토를 확장할 수 있 는 능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도 받아 들이고 적응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한편 크리스처니티투데이는 IS 영토 축소로 인한 군사적 영향력 약 화가 당장 IS의 영향력 쇠퇴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라고, 중동 군사 전 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예측한다 (ISIS losing territory, weakening — but this could force group to spread out more into global terror, expert warns).

중동 전문가인 스피어 박사(Dr. Jonathan Spyer)는 IS와 마주하고 있는 시리아 전선들을 둘러보고 나 서 언론에 "IS가 전략적 요충지들을 잃어버렸지만, 동시에 지구촌 곳곳 으로 테러 세력들이 확산될 가능성 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알카에다 역시 아프간에서 점령지들을 빼앗 긴 후에 국제사회를 겨냥한 테러로 방향을 전향했기에, IS 역시 그러한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www.rptse.com

볼레스키 소장은 "IS는 대규모 군사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사실상 잃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미군 등 국제 따라서 '파리 테러' 이후, IS의 세

이라크에서 작전을 이끌고 있는 미 101공수사단의 사령관인 개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종회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대	신	학	市	4년	고:	졸 및 동등학력자
	항						
	. 파	선교학과		4년]	좉 및 동등학력자	
i							
	대	목	회	Ö	보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١	학	기분	기독교교육학식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워	선	교	Ö	!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역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여교역학과